

제 1 교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탕 0회 모의고사 문제지

#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꽃씨들은 흙을 뚫고 얼음을 뚫고
----------------------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쪽
  - 언어와 매체 ..... 17~20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 텍스트에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이 고찰한 논의와 그에 따른 논증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는 제시되는 논의와 논증의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논증의 추론에 하자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에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요구된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 서문을 먼저 읽음으로써 본문의 논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철학 용어는 낯선 경우가 많고 일상에서 쓰는 용어라도 철학적으로는 추상적 개념인 경우도 많다. 게다가 몇몇 용어는 철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낯설거나 의미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통해 그 용어가 해당 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텍스트를 읽는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다음 부분을 읽은 후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이 이해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내용이 이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진술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명료화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 난항을 겪으면 그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철학 텍스트를 읽는 중 특정 논증의 추론에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당 논증의 결론이 합당하다고 간주하고 해당 논증을 최선의 논증으로 재구성해 보는 태도 또한 요구된다. 전제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논증의 경우 맥락적으로 파악 가능한 전제를 독자가 직접 보충하면 하자가 없는 논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 자비의 원칙이라 한다.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독서 태도는 비단 철학 등 인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학, 경제학, 물리학 등 다른 분야의 텍스트를 읽을 때 역시 이러한 독서 태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학 텍스트에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
- ② 철학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일상에서 쓰일 때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 ③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태도는 인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에만 한정되는 태도이다.
- ④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논증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⑤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이해를 보류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내용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2. 다음은 학생의 메모이다. [A]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철학 입문서를 읽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서문부터 읽어 보니 이 책이 ㉠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 칸트가 순수 이성의 개념으로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읽을 때, ㉡ 그 용어가 내가 알던 의미와 다른 것 같았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데아는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는 용어였다. 이를 통해 ㉢ 칸트 철학에서의 이데아 개념은 알게 되었지만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은 이해가 힘들었는데, 4장에서 헤겔의 형이상학을 해설한 부분을 읽고 나서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 내가 쓰는 언어로 풀어서 말해 보는 일을 시도해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 ① ㉠은 학생이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파악한 본문의 논의이다.
- ② ㉡는 여러 철학자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 ③ ㉢는 학생이 사전을 통해 알게 된 특정 철학 용어의 개념이다.
- ④ ㉣는 학생이 그 부분을 다시 읽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게 된 내용이다.
- ⑤ ㉤는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절차이다.

3. ㉠을 적용하여 <보기>의 논증을 재구성할 때, 보충할 수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은 약물을 복용하였다. 따라서 갑은 법을 위반하였다.

- ① 갑은 불법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
- ② 갑이 복용한 약물은 불법 약물이다.
- ③ 갑은 불법 약물의 종류를 알고 있다.
- ④ 갑은 타의에 의해 그 약물을 복용하였다.
- ⑤ 갑이 약물을 복용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학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는 영국의 사상가 벌린의 논의에서 시작되어 그에 대한 비판과 수정으로 전개되었다. 벌린은 자유 개념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이 둘을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벌린은 근대 사상이 밀이 말한 해악의 원리가 보장된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는데, 해악의 원리란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자유인이라고 한 홉스의 자유인 개념에 그 맥이 닿아 있다. 다만 홉스가 규정한 자유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법에 의해 자유를 보장받지만, 벌린이 규정한 소극적 자유는 법에 의한 보장을 그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벌린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일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다시금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모든 개인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존재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판단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 깨달았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은 빠를수록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 된다. 벌린은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벌린이 이처럼 자신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이 누군가의 적극적 자유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 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진리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은 그 진리를 먼저 인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 고로 이어지고 그 소수가 대중을 합리적으로 이끌면 유토피아적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낳게 되며 이러한 믿음이 전체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남게 되었다.

당대 사상가들 중 일부는 벌린의 이러한 입장 변화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적 고찰을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며 창조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자유를 사회 전체가 포기한다면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소수 통치자에 의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다수 시민이 소수 통치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벌린의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적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벌린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리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은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다.
- ② 사회적 판단은 신속할수록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다수 대중의 적극적 자유 실현을 유도한다.
- ③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자유의 기반으로 본 사상을 계승하는 개념이다.
- ④ 벌린의 동시대 사상가 중 일부는 모두가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면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았다.
- ⑤ 자유에 대한 벌린의 입장 변화에 비판이 제기된 이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5. 자유에 대한 벌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② 자신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 ③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타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다.
- ④ 일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 ⑤ 각자의 자유에 대한 침범이 없으려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

6. 윗글을 참고할 때, 벌린이 자신이 규정한 자유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기>에 대해 할 말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언론 기관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언론 기관의 활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않는다면 국가와 같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 즉 언론 기관에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언론 기관에 모든 종류의 정보와 의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 ① 소극적 자유와 달리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군.
- ②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보에 대한 기득권을 갖춘 언론 기관에 의해 다수의 적극적 자유 실현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하겠군.
- ③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의해 언론 기관의 적극적 자유가 침해당하면 다수 시민이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겠군.
- ④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다루는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겠군.
- ⑤ 시민의 모든 활동 영역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 기관에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겠군.

7. 문맥상 ㉠과 바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각(自覺)하였다
- ② 자문(自問)하였다
- ③ 자부(自負)하였다
- ④ 자임(自任)하였다
- ⑤ 자초(自招)하였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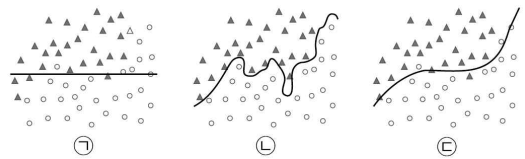
기계 학습 분야에서의 지도 학습은 특정 영역에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잘 반영하는 함수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적절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때 이러한 지도 학습의 결과로 획득된 함수를 '모델'이라고 한다. 지도 학습은 일반적으로 우선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 학습 데이터와 ㉡ 검증 데이터로 나눈 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중은 8:2나 7:3 정도로, 대체로 학습 데이터의 비중을 크게 둔다.

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임의의 ㉢ 매개변수\*가 주어진 시작 모델이 설정되고, 이 모델에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통해 결괏값을 예측하게 되는데, ㉣ 학습 알고리즘은 여기서 모델이 예측한 결괏값을 학습 데이터의 실제 결괏값과 비교하면서 두 값 간의 차이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 데이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학습 단계가 끝나면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대한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평가는 학습 데이터의 소진 시점에서 갱신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델이 예측한 값과 검증 데이터의 실제 값 간의 차이인 검증 데이터에서의 손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음 학습을 위해

이 값이 시작 모델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학습 단계가 다시 시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 학습 주기라 한다. 지도 학습은 모델이 전체 데이터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주기를 거듭해 계속되며, 새로운 학습 주기가 시작될 때에는 학습에서의 편향성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재분류된다.

㉦ 임의의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를 판별하는 지도 학습 과정을 살펴보자. 이 지도 학습은 수년 간 누적된 메일들로부터 특정 단어들의 출현 빈도와 스팸 메일 간의 함수 관계를 도출하여, 임의의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모델을 얻는 과정이다.



위 그림들은 이 시스템에서 진행된 서로 다른 학습 결과들이다. 그림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는 학습 데이터들로 각각 일반 메일과 스팸 메일을 뜻하며, 이들 사이를 가로지른 선은 지도 학습 과정에서 얻은 모델이다. 이 가운데 ㉠의 모델은 학습 주기의 부족으로 인해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부적합' 모델인 반면, ㉡의 모델은 학습 주기를 충분히 거쳐 낱말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는 예외적인 데이터가 섞여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반영한 모델은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 모델은 '과적합' 모델이 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는 가급적 무시하고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의 모델이 이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평가 단계에서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도 학습을 마쳐야 한다.

학습된 모델에 검증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미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게 되면 모델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가령  $\theta_0 + \theta_1x + \theta_2x^2 + \theta_3x^3 + \theta_4x^4 \dots$ 와 같은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정규화 함수를 통해 각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고차항의 매개변수를 상쇄하여  $\theta_0 + \theta_1x + \theta_2x^2$ 와 같은 형태에 가까운 더 단순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 매개변수: 둘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설정된 값에 따라 함수의 외형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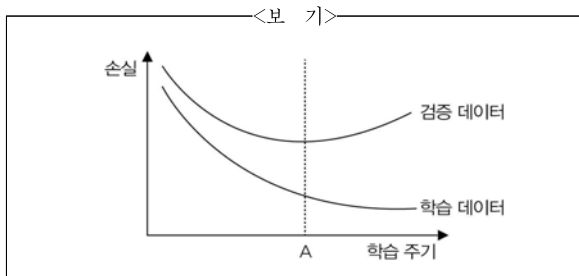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작될 때마다 ㉢이 무작위로 재설정된다.
- ② ㉠을 통해 ㉢이 갱신되면 ㉠의 손실이 줄어든다.
- ③ ㉠은 ㉠을 통해 갱신된 ㉢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 ④ ㉢이 거듭되는 동안 ㉠과 ㉡는 계속해서 재분류된다.
- ⑤ ㉢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보다 많은 양이 활용된다.

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지도 학습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 알고리즘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 ② 모델이 과적합 상태일 때는 매개변수에 부여된 가중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 ③ 학습 주기가 적어 전체 데이터의 전반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이 부적합 모델이다.
- ④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지도 학습은 모델이 모든 검증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10. <보기>는 ㉠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손실 추이를 보여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도 학습 초반에 손실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델의 복잡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② A 시점까지 학습 주기가 진행된 모델은 전체 데이터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 ③ A 시점 이후로 학습 주기가 진행되면 모델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 ④ A 시점 이후에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를 통한 평가 횟수를 줄여야 한다.
- ⑤ A 시점 이후에 모델에 정규화 함수를 도입하여 모델을 수정하면 검증 데이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전력 관리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지도 학습 과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나타난 매일의 온도와 습도 및 각 날짜의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 주기 동안 지도 학습을 진행한 (가) 모델이 과적합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해당 모델의 복잡도는 50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정된 (나) 모델을 이용해 그로부터 1주일간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실제 사용량과 유사한 값을 얻게 되었다.

- ① (가) 모델의 지도 학습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는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고 전력 사용량은 검증 데이터에 해당하겠군.
- ② (가) 모델의 과적합 상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 정도에 의해 판단되겠군.
- ③ (나) 모델의 복잡도는 50 이상으로 나타나겠군.
- ④ (나) 모델이 예측한 전력 사용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의 차이는 학습 데이터의 손실에 해당하겠군.
- ⑤ (가) 모델에 비해 (나) 모델은 이상 기온이 나타난 날의 전력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고대 유학의 경전인 『대학』에서 도덕적 수양과 그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조목이다. 12세기에 이르러 신유학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南宋)의 주희에 의해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격물치지’는, 후대 유학자들이 각자의 인식 체계를 ㉠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희는 학자와 학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던 ‘격물치지’에 대해, ‘격물’은 구체적 사물의 원리를 궁구하는 과정으로 보고,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理)’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개개의 구체적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인간은 어느 순간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만물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궁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일분수’와 ‘심구중리’는 조선에서도 성리학의 근본 명제로 받아들여졌다. 가령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에 따르면, ‘이’는 모든 사물을 초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이’와, 구체적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서의 ‘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일(理一)’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그 구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기(氣)’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분수(分殊)’의 개념이다. 이이는 여기에 심구중리의 원리를 결합하여 격물치지의 원리에 대해 “은갓 일과 물(物)에는 이가 있지 않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은갓 이를 관리하므로 구할 수 없는 이는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존재가 아니며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道理)로 귀결된다.

(나)

서구 자연학의 유입으로 자연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론 내지 학문의 방법론이 모색되었다. 17세기 이후의 실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인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연 세계 그 자체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의 ‘이’가 아니라 자연 세계의 구체적인 성질로서의 ‘이’를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격물치지의 의미를 해석한 이론을 ㉠실학적 격물치지설이라 한다.

실학적 격물치지설의 선구자인 박세당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개개의 사물이 존재하는 법칙을 탐색하여 그 법칙에 내재한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존재 법칙을 가진 개개의 사물을 어떻게 대할지 아는 것이 ‘치지’라고 보았다. 이러한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에는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사물은 종(種)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 형태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하였다는 그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한 것으로,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홍대용도 만물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라 사물이 종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과 자연 세계의 사물을 대등하게 보는 그의 ‘인물균등론(人物均等論)’은 성리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사물의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의식의 소산이었다. 또한 그는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점도 사물의 관점도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천시물론(以天視物論)’을 주장했다. 이 역시 자연 세계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그의 자연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이

도덕적 자각 능력을 부여받아 인의예지를 실천할 수 있으나 자연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박세당과 홍대용에 의해 균열이 일어난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는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분명하게 분리한 정약용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후대 유학자들의 대립적 견해를 절충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 ②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중국 유학자와 조선 유학자 간의 해석 대립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나)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해석 원리로 이해되던 특정 원리가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서 부정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선의 유학자가 제안한 개념이 현대 인식론에서 재조명된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
- ⑤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의 포괄적 의미를 밝히고 있고, (나)는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학문의 진보와 퇴보가 이어진 과정을 살피고 있다.

13.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격물치지’는 12세기 성리학이 집대성되면서 인식론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 ② 주희는 사물의 원리에는 인간과 분리된 독자적 이치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치지’라고 보았다.
- ③ 사물을 지속적으로 궁구하다 보면 ‘이’를 깨닫게 된다는 인식에는 ‘심구중리’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 ④ 이이는 ‘이’를 정신적 실체로, ‘기’를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 봄으로써 사물의 본성과 형태를 구분하였다.
- ⑤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사물의 이치가 파악된다는 이론 체계에서만 가능하다.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따르면, 사물의 존재 법칙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물에 대처할 방안을 아는 것이 ‘치지’이다.
- ② ㉡에 따르면,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은 보편적 원리를 인식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만물의 작용은 자연 세계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④ ㉡은 ㉠과 달리 사물이 종에 따라 각기 다른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과 ㉡은 모두 인간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 결과가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15. (가)와 (나)를 통해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에 대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희에게 ‘이일분수’는 만물의 근원은 하나이므로 공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원리로서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의 바탕이 되었다.
- ② 이이에게 ‘이일’은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고, ‘분수’는 ‘이’가 ‘기’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 ③ 박세당이 사물은 중마다 부여받은 ‘이’가 각기 다르다고 본 것은 만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가 하나라는 ‘이일분수’ 개념을 부정한 것이었다.
- ④ 홍대용이 주장한 ‘이물균등론’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견해가 내재해 있었다.
- ⑤ 정약용이 자연 세계를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계로 본 것은 인간이 지닌 도덕적 자각 능력의 근원을 ‘심구중리’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다.

16.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의 학자 최한기는 참다운 ‘이’는 도덕적 인식과 무관한 객관 세계의 ‘이’이며, 따라서 인간의 감각 기관을 매개로 한 관찰을 통해 객관 세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의 마음에 그 어떤 선형적인 ‘이’도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 ① 도덕적 인식과 객관 세계의 ‘이’를 별개로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 세계의 ‘이’를 분리하여 본 박세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군.
- ② 인간의 마음에 선형적인 ‘이’가 존재함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심구중리’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주희의 인식 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군.
- ③ 감각 기관에 의한 관찰을 통해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이’를 관리한다고 본 이이와 유사한 인식론을 보이고 있군.
- ④ 인간의 마음에는 선형적인 ‘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본 점에서, 만물의 ‘이’는 인간이 아니라 만물 자체에 있다고 한 정약용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군.
- ⑤ 도덕적 인식과 무관한 객관 세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떠나 ‘이천시물론’을 주장한 홍대용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군.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이 우선 과제였다.
- ② 연장자를 마을 대표로 세워 협상에 나서자.
- ③ 가족들에게 체면을 세울 만한 성과를 얻었다.
- ④ 그 순간 눈에 핏발을 세우고 덤비기 시작했다.
- ⑤ 길가에 차를 세우려면 먼저 주변을 살펴야 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 세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탄다. 잡바를 입은 이 씨와 외투를 입은 김 씨가 나란히 앉고 그 뒷자리에 고깔모자를 쓴 박 씨가 초면인 여자와 앉게 된다.

“어디까지 가세요?”

불쾌한 일을 오래 천착할 필요는 없다. 화김에 서방질한다는 속담이 있다.

“**균하리까지 가요.**”

여자는 의외에도 부끄럼을 타는 눈치다. 제법 이마를 붉히기까지 한다. 실핏줄이 가느다랗게 두드러진다.

“미스타 김은 어디서 입대를 하셨소?”

잡바를 입은 사나이는 옆에 사람이 무감동하게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하다**. 그가 질문을 한 것은 이쪽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논산 판(版)——또는 입대판——을 내어놓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나? 아, 나! 나, 난...”

그는, 외투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김 씨는 입대하던 날의 광경을, 그것이 조금 전에 문득 떠올랐을 때완 달리,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건 참 재미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가거든요.”

모자를 쓴 사람이 모자 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여자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여자는 행복한 표정이다. **그 여자는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 아마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쉬울 것이다.

㉢“**아, 이놈의 버스는 떠날 줄을 모르나!**”

잡바를 입은 사나이는 울적하다. 그는 승강구 쪽을 훑어본다. 차장은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

“이 차, 어디로 가나?”

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이** ㉣**고개를 뒤로 발뚱 젖히고 차 안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제풀에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가우똥해 보이고 차의 문이 만들어 주는 좁은 시야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잡바를 입은 사나이는 적이 마음이 풀린다. 색안경은 사치품일까, 필수품일까. 대부분의 경우, 필수품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길거리에서 파는 백 원짜리로 사치를 하려고 하다니! 그는 이천 원짜리를 사려다가 너무 비싸서 천 원을 주고 중고를 산 바 있다. 그것은 지금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 눈만 하얗게 쌓인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코 위에 걸칠 수 있다.

김 씨는 색안경을 낀 사람을 보면 장님을 생각한다. 그는 한 때 자기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장님이 되어 안마쟁이 노릇을 하는 상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전투에서 눈을 부상당한다. 육군병원에 입원한다.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다. 애인이 찾아온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차이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다. 장님이 되어 색안경을 낀다. 지팡이로 밤의 아스팔트 위를 더듬으며 통소를 분다.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여자가 그를 부른다. 귀에 익은 목소리다.

“집이 거기요?”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요.”

“호 호 호.”

여자의 웃음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 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킬킬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 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쟁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들고 있지만 안경을 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 준다. 그는 그것을 받아 넣고 다시 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통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인제 떠날래나?”

[A]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수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 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끼가 허영게 닳은 낡은 코르덴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수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물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공 하고 돌아앉아서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건다. 삼십 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48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승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겠더라면 운전수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

㉠ “애, 이제 슬슬 떠나 볼런?”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자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 서정인, 「강」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 씨 옆에 앉은 여자는 애인이었던 김 씨를 몰라본다.
- ② 이 씨는 형사의 단속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 ③ 박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김 씨에게 불만을 가진다.
- ④ 김 씨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이전과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
- ⑤ 여차장은 버스의 출발 지연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나타낸다.

1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을 주저하고 있다.
- ② ㉡: 상대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 ③ ㉢: 상황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의 물음에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⑤ ㉤: 버스가 출발하기를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2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특정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 ④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 공간은 현실 공간을 서사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서술자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서술 시점과 서술 방식 등 서술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강」의 서술 공간은 특이한데, 사건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고, 인물과 서술자의 시점이나 내면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불연속적으로 사건이 서술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서술이 나타나고, 서술 상황에서 인물의 내면이 삽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술 공간의 특징을 통해 「강」은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실 간에 인과성도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현대 사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군하리까지 가요.’라는 여자의 말과 ‘그래요?’라는 박 씨의 반응 사이에 이 씨와 김 씨의 대화 상황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불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마음에 꺼림칙하다.’는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와 달리 전지적 서술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의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서술 시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③ ‘그 여자는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는 박 씨의 추측인지 서술자의 추측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의 내면이 혼재된 서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색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서술 이후 이 씨, 김 씨, 박 씨에 대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아, 인제 떠날래나?’는 주체나 상대가 불분명한 발화이고 ‘네, 곧 가요.’는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는 발화라는 점에서, 인물 간 소통의 의도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섬 안 토질이 박하여 생활이 가난하니  
 효자토란\* 심어두고, 그로 구황\*한다커늘  
 쌀 서 되 보내어서 사다가 쪄 먹으니  
 모양은 하수오\*요 그 맛은 극히 좋다  
 마같이 무르지만 달기는 더 낫도다  
 이 ㉠ 씨를 내어다가 우리나라에 심어두고  
 가난한 백성들을 흉년에 먹게 하면  
 진실로 좋겠으며 시절이 통한하여  
 가져가기 어려우니 씨밭기를 어이 하리

(중략)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보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 **은화**를 갖고 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이다  
**승산(勝山)\***이 부끄러워 백번이나 사정하고  
**고쳐 써서 하온 말이** 예부터 성현(聖賢)네도  
 제자의 수수례(授受禮)\*는 다 받아 게오시니  
 소생(小生)이 이것을 예물을 하옵고서  
 제자 되기 원하나니 물리치지 마옵소서  
 수수(授受)라 하는 것은 포육(脯肉)\*으로 하는지라  
 어디서 **은과** 비단으로 예물을 한단 말고  
 성현네 계시어도 받을 리 만무하고  
 내 무슨 재덕(才德)으로 그대의 스승 될까  
 주고받기 다 그르니 잠말 말고 **가져가라**  
 승산(勝山)이 도로 나가 ㉢ **감자** 설탕 가지고 와  
 지성으로 권하기에 조금씩 맛을 보고  
 행중(行中)의 시전지(詩箋紙) 열 장으로 담레하다  
 이윽고 삼문사(三文士)\*가 차례로 들어오니  
 나는 글 다 지었기에 그리로 가는구나  
 삼방(三房)\*에 열른 다녀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 리는 겨우 가서 날 저물고 ㉣ **큰비** 오니  
 길이 질기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 **가마** 멘 놈 다섯이 서로 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 전혀 없어** 언덕에 가마 놓고  
 이윽히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사면(四面)에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일행들은 간데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지척을 불분(不分)하고** 망망한 대야중(大野中)에  
 말 못 하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 밤 이 경상(景狀)은 고단하고 위태하다  
**가마꾼**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비고  
 가마 속에 있는 ㉥ **음식** 갖가지로 내어주니  
 지지귀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 매고

조금씩 전진하여 곳곳에 가 이러하니  
 만일 **음식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세**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 효자토란: 고구마를 가리킴.
- \* 구황: 기근이 심할 때 빈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움.
- \* 하수오: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는 새박뿌리.
- \* 승산: 일본 문인 이름.
- \* 수수례: 제자가 될 때 스승에게 올리던 예물.
- \* 포육: 얇게 저미어서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
- \* 삼문사: 시문(詩文)을 통한 일본인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세 명의 문인.
- \* 삼방: 통신사를 수행하던 종사관이 머물던 곳.

(나)

배가 추자도(楸子島)에 다다랐을 때 잠이 깨었습니다. 지지과(地誌科) 숙제로 지도를 그리어 바칠 적에 추자도쯤이야 슬쩍 빼어 버리기로서니 선생남도 돋보기를 쓰셔야 발견하실까 말까 생각되던 녹두알 만하던 이 섬은 나의 **소학생 적에는 시험 점수에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달도 넘어가고 밤도 새벽에 가까운 때 추자도의 먼 불을 보니 추자도는 새벽에도 셋별같이 또렷한 것이 아니오리까! 종래 고무로 지워버리지 못하고 만 이 섬에게 이제 꾸지람을 들어야 할까 봅니다.

(중략)

**배가 바로 섬에 닿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사이를 두고 닿을 내리고 쉬는 것입니다. 노를 저으며 오는 작은 목선(木船)들이 마침 기다렸었노란 듯이 물러와서 사람을 내리우고 짐을 풀고 하며 **새벽 포구가 왈자지껄하며 불빛이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웬 짐짝과 물화(物貨)가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것입니까. 또 실리는 물건도 많은 것입니다. 밤이라 섬의 윤곽을 도저히 볼 수 없으나 내가 소학생 적에 가볍게 무시하였던 그러한 **절도(絶島)\***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색뚝뚝하는 적은 목선에 **실리어 섬으로** 가는 젊은 여자 몇은 간단한 양장까지 한 것이었고, 손에 파라솔까지 가진 것이니, **여자라는 것은 절도에서도** 몸짓과 웃음이 유심히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욱이 말썽스럽지 않은 섬에서 보니까 더 싱싱하고 **다혈적(多血的)이고 밤심한** 것이 아니오리까. 밤에 보아도 건강한 물기가 듣는 듯한 얼굴에 ㉦ **웃음소리** 말소리가 물결 위에 또랑또랑 울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닌 이른 새벽에 무엇이 그렇게 재깅거릴 것이 있는 것이며 웃을거리가 많은 것입니까. 사투리는 사투릴지라도 대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며 짐 푸는 일꾼들의 노랫소리는 실상 전라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듣지 못한 곡조였으나, 구슬프고도 힘차고 굳센 소리였습니다.

생활과 근로(勤勞)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절로 생길 수 있는 노래 곡조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목선 한 척이 또 불을 켜들고 왔는데 **벵장** 널빤지 쪽을 쳐들고 보이는 것은 **펄펄 뛰는 생선들이** 아닙니까! 장어, 붉은 도미, 송어 따위가, 잣길이 썩이나 되는 놈들이 우물우물하지 않습니다! 값도 놀랄게도 험한 것입니다. 사라고 권하기도 하는 것이요, 붉은 도미 흐벅진 놈을 사서 감판 위에서 **회를 쳐서 먹고 싶은** 것입니다. 독하고

도 맛이 감치는 남도(南道) 소주를 기울이면서 말이지요.  
- 정지용, 「다도해기 - 실적도(失籍島)」 -  
\* 절도: 절해고도(絶海孤島).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특정 작물을 다른 작물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인물 간 대화 내용을 인용하여 극적 효과를 내고 있다.
- ③ (나)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가난한 백성들을 떠올리게 한다.
- ② ㉡: '나'에게 선비의 도리를 생각하게 한다.
- ③ ㉢: '나'로 하여금 '승산'을 제자로 삼게 한다.
- ④ ㉣: '나'의 상황을 고단하고 위태롭게 한다.
- ⑤ ㉤: '나'의 신분이나 지위를 짐작하게 한다.

24.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자도 포구에 내려 상점의 싱싱한 생선들을 구경한다.
- ② 소학생 시절 추자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던 일을 후회한다.
- ③ 추자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닌 듯한 애절한 한을 떠올린다.
- ④ 추자도로 가는 목선 위의 물자와 사람들에게서 활기를 느낀다.
- ⑤ 낮에 본 추자도와 밤에 보는 추자도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25.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편이고, ㉢는 글쓴이가 대상의 건강한 모습을 인지하는 단서이다.
- ② ㉠은 화자가 상대에게 이동을 독려하는 매개이고, ㉢는 글쓴이가 대상의 경솔함을 알게 되는 단서이다.
- ③ ㉠은 화자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는 글쓴이가 대상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매개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는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은 화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는 글쓴이의 감정을 무더지게 하는 원인으로 기능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여행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기술한 기행 문학이다. 조선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기록인 (가)에는 일본 문인과 나눈 필담, 돌발 상황에서의 경험이 제시되면서 예법을 중시하는 선비로서의 면모,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다. 추자도를 여행하는 기록인 (나)에는 '실적도(문서에서 사라진 섬)'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아주 작은 외딴섬인 추자도에서의 경험과 감상이 담겨 있다.

- ① (가)는 '섬 안 토질이 박하여' '효자토란'으로 '구황한다커늘'에서, (나)는 '새벽 포구가 왠지떨리며 불빛이 요란해지는 것'에서 작자가 여행지에서 보고들은 풍물이 소개되고 있군.
- ② (가)는 '중이에 써서 보되', '고쳐 써서 하온 말'에서 필담을 주고받는 상황임이, (나)는 '배가 바로 섬에 닿'지 않고 '목선에 실리어 섬으로 가'야 하는 데서 추자도가 작은 외딴섬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③ (가)는 '의에 크게 가하지 않'고 예법에 맞지 않으니 '은'을 '가 저가라'고 한 데서 작자의 선비로서의 면모가, (나)는 '소학생적에는 시험 점수에도 치지 않'던 섬이 '절도는 아닌 것이 틀림없'다는 데서 작자의 변화된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④ (가)는 '갈 길이 전혀 없어', '일행들은 간데없고', '지척을 불분하'는 데서 작자가 경험했던 돌발 상황, (나)는 '뱃장' 안의 '펄펄 뛰는 생선들'을 보며 '남도 소주'와 함께 '회를 쳐서 먹고 싶'다는 데서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감상이 드러나고 있군.
- ⑤ (가)는 '승산'과 달리 필담조차 안 되는 '가마꾼'은 '왜놈'이라며 '음식 없었다면 뭇연코 도주할' 것이라는 데서, (나)는 '여자라는 것은 절도에서도' '다혈적이고 방심한 것'이라는 데서 각각 일본 하층민과 여성을 비판하는 작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의 남두성이었다가 승상 김규와 유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김원은 천자의 명을 받고 아귀에게 납치된 세 공주를 구하기 위해 지하세계로 들어간다.

세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십여 일이 지나며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다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①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호주(胡酒)와 성찬(盛饌)을 가지고 권하기를,

②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자오면 남두성 잡기가 어찌 근심하리우? 주찬을 대령하였자오나 다 드셔서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매 여러 여자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려 하였다.

막내 공주가 아귀 곁에 앉아 말하기를,

㉠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 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괴이하지 않으니 받아 머리맡에 두라.”

하고 칼을 주었다.

공주가 칼을 놓고 아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거늘, 그 칼을 가지고 현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즉시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귀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아귀의 아홉 머리를 다 베어 내치거든 즉시 재를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정하고,

“아귀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귀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 켜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다. 아귀가 잠을 깨지 못함을 보고 칼을 들어 아홉 머리를 치니 아귀의 아홉 머리가 일시에 떨어졌다.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끼치니 아귀인들 어찌하리오?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다. 아귀가 한 식경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거꾸러지거늘, 공주 등이 아귀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김원은 세 공주를 지상으로 올려 보낸 뒤 굴에 갇히지만 아귀에게 잡혔던 용왕의 아들을 구해 용궁으로 가 용녀와 결혼하고 신이한 연적을 선물 받아 귀향하는 도중에 연적을 탐낸 여관 주인에게 피살된다. 한편 은혜를 갚고자 승상 부부를 모시고 김원의 집에 살던 막내 공주는 금고양이가 여관 주인에게서 물러다 준 연적을 천자에게 보낸다.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내전에 들어가 연적을 보니, 그 속에서 한 선녀가 나왔다. 천자가 깜짝 놀라 의아하여 그 근본을 물었다. 선녀가 대답하기를,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대명 도원수 김원이 아귀를 소멸하고 용자(龍子)를 구제하여 돌아오니, 용왕이 사위를 삼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첩과 함께 왔습니다. 형주에 이르러 한밤중에 여관 주인에게 원수가 해를 보옵고, 그놈이 첩을 탈취하려 하였사오니 첩은 여러 가지로 변신화와 지금 조화 중에

있사옵니다. 원수의 시체는 계양산에 묻혔사오니 타고난 수명이 아직 멀었사옵니다. 시체를 찾으면 봉래산 구류선의 병에 든 물과 삼신산의 금강초가 있사오니, 그놈을 죄주고 시체를 찾아 이 약을 먹이시면 원수가 환생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오니 그대로 바빠 시험하소서.”

하고 사라졌다.

천자가 듣고 크게 기뻐하여 외전에 나와 여러 신하들을 모이고 주인을 엄형한 후 결박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계양산에 가 원수의 시체를 찾아내니 시체가 썩지 않고 평상시와 같았다. 금강초를 얻고 병에 든 물을 입에 부으니 원수가 일어나 앉으며 가로되,

㉢ “어찌 구천 리 길에 이곳에 있는고?”

사관이 전후사연을 다 말하니, 원수가 그제야 생각하고 사관에게 사례했다. 사관이 원수를 피시키고 황성에 이르니, 천자가 백관을 거느려 맞이하였다.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반기며 치하시니, 유씨 부인과 공주가 기뻐하고 듣고 너무 기뻐서 취한 듯도 하고 미친 듯도 하며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를 못하여 지향 없는 사람 같았다. 공주가 부인에게 고하여 원수를 황성에 가서 뵈옵기를 청하니, 부인이 그 바쁜 마음을 헤아려 허락하였다. 공주가 소복을 벗고 채의(彩衣)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시녀에게 당부하여 금고양이를 잘 먹여 기르라 하고 황성으로 갔다.

이때 천자가 승상 김규를 초공(楚公)으로 봉하고 김원을 부마로 정하는 뜻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예부로 하여금 태일하게 하여 김원을 좌승상 겸 동백후 부마도위로 봉하고 그 모친 유씨는 총렬 부인으로 봉하였다. 원수가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뵈오니 부인이 또한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때 금고양이가 원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변신하여 미인이 되어 승상 부부를 뵈니, 승상 부부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담배하였다. 원수가 살펴보니 이는 곧 용녀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슬기와 계략에 의해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다.
- ② 주인공은 자신이 구출할 인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를 통해 이전 사건의 경과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악인이 처단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주인공은 초월적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귀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인물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 ② 원수는 세 공주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아귀의 칼을 훔쳐오도록 시켰다.
- ③ 막내 공주는 김원의 혼인과 피살 소식을 용녀로부터 직접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 ④ 유씨 부인은 아들의 소식을 듣자 막내 공주와 함께 아들을 만나기 위해 황성으로 갔다.
- ⑤ 용녀는 김원과 이별한 후에 금고양이로 변신하여 막내 공주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적대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 ② ㉡: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능력을 추켜세우며 방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③ ㉢: 술에 취한 상대방이 실수로 귀한 칼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④ ㉣: 자칫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뻔한 것을 미리 확인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 ⑤ ㉤: 자신이 겪은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의 서사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 ‘적강화소’가 결합해 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평민 무사가 여성을 납치한 지하 괴물과 싸워 그 여성을 구해 결혼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민중들의 낭만적 소망을 담고 있다. 한편 적강화소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이겨낸 후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는 주인공의 비범함을 정당화하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때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들은 이미 지상계로 내려올 때부터 예정된 것이자, 천상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 ① 김원이 지하세계로부터 구해 준 용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지닌 낭만성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군.
- ② 김원이 대적한 상대가 괴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김원의 시체가 썩지 않았던 점과 용녀가 조화를 부리는 점도 이야기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군.
- ③ 김원이 지하세계로 내려가 머리 아홉 달린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범함은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군.
- ④ 김원이 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고,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들을 천자의 명으로 구출한다는 점에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민중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김원이 용궁에서 얻은 연적을 여관 주인에게 빼앗기고 피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천상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천상계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년(萬年)을 짜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붙여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義)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숫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무침을 입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러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A]

[B]

[C]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주고 되비취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

[D]

[E]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묘사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뜨거운 가슴’은 갈등의 해소를, ‘붉은 마음’은 입을 향한 그리움을 표상한다.
- ② ‘한 방울 피마져 불어넣’는 것은 생명력의 고취를,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것은 생명력의 회복을 함축한다.
- ③ ‘모든 것 다 잃고라도’와 ‘모든 것 다 잇고라도’는 화자의 현실적 태도를 내포한다.
- ④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과 ‘술이 되는 날’은 화자가 지향하던 미래가 실현된 때를 가리킨다.
- ⑤ ‘임의 손길’은 화자가 그리는, ‘못 잊힐 모습’은 화자가 꺼리는 대상이다.

3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방’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방’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C]: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④ [D]: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어둠’이 지니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E]: ‘서로’, ‘스스로’, ‘조금씩’, ‘끊임없이’ 등의 부사어를 통해 ‘물건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한국전쟁의 시기에 생명의 가치가 짓밟히는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입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기를 소망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입을 그리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사물을 치밀하게 관찰하여 관찰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도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 넣는 작가 의식이 구현된 작품이다. 화자는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일상적 모습이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는 전쟁으로 인해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피리의 아픈 가락’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한스러운 심정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해 뜬 아침’은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하는 시기를, ‘거룩한 일월’은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과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캄캄한 ‘방’의 모습을 ‘어둠’을 주제로 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은 자세히 보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관찰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다시 죽을 날까지’와 ‘다시 재 될 때까지’는 극단적 상황을, (나)에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빛을’ ‘끊임없이 나누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나타낸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교황 요한 23세의 ‘지구본’, 성 프란치스코의 친필기도 문이 담긴 ‘카르톨라’ 등 세계적인 종이 문화재 복원에 전통 한지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종이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의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종이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종이는 질겨야 하고, 쉽게 변색과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 한지는 어떻게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전통 한지의 제조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이 그림은 다�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백피를 잣물에 삶는 모습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잣물은 백피 섬유에 리그닌 성분을 제거해 종이 색깔이 밝아 줍니다. (㉡ 자료 제시) 보시는 그림은 잣물에 삶은 백피를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를 잘게 부수는 모습입니다. 이 방식은 섬유질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지는 기계로 섬유를 분쇄하고 이를 재합성한 일반 종이보다 더 질깁니다.

(㉢ 자료 제시) 이 그림은 풀어진 백피 섬유를 수조에 담고 풀을 섞어 종이를 뜨는 모습인데요, 손으로 흔들고 있는 발의 한 쪽이 줄에 묶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한쪽을 줄로 묶어 두면 다른 한쪽을 잡고 앞뒤 좌우로 발을 흔들면서 종이를 뜰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외발 뜨기’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지는 섬유의 결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습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아져서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지는 다른 종이보다 질기고, 변색과 변형에 강합니다. 그래서 종이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화제와 관련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발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발표 대상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은 다패 껍질에서 백피가 추출되면서 리그닌 성분이 제거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2]는 백피를 잣물에 삶는 방식이 섬유를 잘게 풀어지게 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2]는 백피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방식이 섬유질의 손상을 막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3]은 외발 뜨기 방식을 통해 섬유의 결이 일정하지 않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3]은 풀을 섞는 과정을 통해 풀어진 섬유가 다시 결속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생 1:**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몰랐던 내가 부끄러웠어. 그런데 리그닌 성분이 무엇이길래 종이의 변색을 일으키는 걸까?

**학생 2:** 백피를 방망이로 두드리는데도 섬유질에 손상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 섬유를 방망이로 두드릴 때와 기계로 분쇄할 때의 차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야겠어.

**학생 3:** 전통 한지의 제조 방식과 그 효과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준 점이 좋았어. 아 참, 개량 한지는 발을 앞뒤로만 흔들어 종이를 뜬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통 한지보다 강도가 약하겠네.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에 관한 지식수준을 환기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활용한 정보 제시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38~42] (가)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오늘 '대화형 인공지능 □□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다들 자료 찾아봤어? 우리 모두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글이니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고 해.

학생 3: 나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최근에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나대.

학생 1: 그런데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학생 3: ㉠ 나도 그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터넷상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 1: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

학생 3: ㉡ 응. 실제로 한 범죄 집단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조작된 데이터를 심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있었어. 보안이 취약한 데다가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아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지.

학생 2: ㉢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일 거야. □□을 통해 각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같은 창작물도 만들어 낼 수 있거든.

학생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채팅하듯 질문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거든.

학생 3: ㉣ 네 말을 듣고 보니 □□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이 인기를 끄는 요인일 거야.

학생 1: 그러게. 참, 아까 □□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다른 결점에 대해서도 말해 줄래?

학생 2: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학생 1: □□이 어떻게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려 줄래?

학생 2: ㉤ □□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지식 재산권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용해서 답변을 제공하니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

학생 1: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돼.

학생 3: □□의 결점을 밝히면서 올바른 사용 자세를 글에 제시하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거야.

학생 1: 그래, 일단 내가 초고를 쓸 테니 나중에 점점 부탁해. 모두들 고마워.

(나)

대화형 인공지능 '□□'의 열풍, 도대체 뭐길래?

최근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이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으로, 자연어 처리,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미리 입력된 몇몇 내용을 출력해 질문에 답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문의 맥락과 어조에 따라 스스로 생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에 전문가 못지않은 답변을 제공하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은 답변에 한계가 없다. 각종 생활 정보는 물론 '사랑', '정의'와 같은 철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질문도 거뜬하게 답변해 낸다. 나아가 질문을 거듭할수록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각종 보고서나 소설이나 시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은 채팅하듯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의 인기 현상에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으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의 인기 현상은 부정적이다. □□은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학습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거짓 선동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은 필연적으로 타인이 만들어 낸 지식이나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결점들이 점차 보완될 것이다. 하지만 그 보완은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학습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는 일과 학습 데이터의 모든 원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해커들에 의해 뚫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더라도 그 시스템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는 □□은 인류의 지능과 언어력에 한참 못 미치며 도덕적이지 않다며 혹평했다. 따라서 □□의 결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겠다.

38.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 ②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추론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④ 대화 참여자가 한 발언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한다.
- ⑤ 대화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

39.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앞선 발화 내용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화형 인공 지능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 개발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 앞선 발화 내용에 수긍하며 □□의 인기 요인에 대한 논의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앞선 발화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40. 다음은 '학생 1'이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대화 내용	글쓰기 계획
대화형 인공 지능의 정의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활용된 기술 구체화하기 ..... ①
□□의 기술 수준	일반적인 챗봇과 비교해 □□의 기술 수준 부각하기 ..... ②
□□의 인기 요인	□□의 장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기 ..... ③
□□의 결점	□□의 결점을 환경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하기 ..... ④
□□ 사용의 올바른 자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 □□ 사용 자세에 대한 견해 강화하기 ..... ⑤

41. <보기>는 (나)의 제목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열풍, 결점 파악해 주체적으로 사용해야.**

- ① □□ 사용에 대한 네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 ②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 ③ □□의 인기 요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 ④ □□의 발전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 ⑤ □□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42. '학생 2'가 다음의 점검 기준에 따라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예/아니오)
•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도 다루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했는가?	㉤

- ① 최근 개발된 □□이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 ② □□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의 인기 현상은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 ③ 학습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는 일과 학습 데이터의 모든 원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더라도 그 시스템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 ④ □□의 인기 현상에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 ⑤ □□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정보 제공의 가능성, 악용될 가능성, 지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같은 결점들이 점차 보완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학생의 초고**  
 허리가 아픈 청소년이 늘고 있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32% 증가했다. 청소년기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자세이다. 의자에 엉덩이를 반만 걸치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는 등 잘못된 자세로 걸어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척추 옆굽음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 들어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척추 옆굽음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척추 옆굽음증은 척추가 옆으로 심하게 굽은 질환으로, 이 질환이 생기면 허리 통증은 물론 변형된 척추가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척추 옆굽음증은 초기나 중기와 달리 말기로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척추 옆굽음증을 초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전방 굴곡 검사’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정면을 보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선 다음 그 상태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아래로 뻗는다. 이때 등이나 허리의 한쪽이 튀어나와 보인다면 척추 옆굽음증일 가능성이 크다.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가슴과 어깨를 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허리가 아픈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해야겠어... ㉠
- 청소년기 허리 통증의 원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야겠어... ㉡
- 척추 옆굽음증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상을 소개해야겠어... ㉢
- 성인과 청소년의 척추 옆굽음증 치료법을 비교해야겠어... ㉣
-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알려줘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독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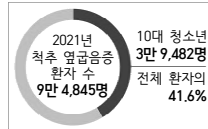
- ① 자세가 허리 건강을 좌우한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으로 허리 건강을 지켜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하자.
- ② 바른 자세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유지할 수 있다. 튼튼하게 관리된 허리는 건강한 신체 발달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 ③ 바른 자세는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
- ④ 허리만 곳곳이 세워도 바른 자세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앉을 때나 걸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 ⑤ 허리는 사소한 원인으로 나빠지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는 또다시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통계 자료

㉠-1.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 환자 현황(2021년)



㉠-2. 흰 척추 각도에 따른 치료 방법

흰 척추 각도	치료 방법
20도 미만(초기)	정기적인 관찰
20도~39도(중기)	보조기 착용
40도 이상(말기)	수술

㉡. 전문가 인터뷰

“성장기 척추 옆굽음증은 골반 불균형을 초래해 키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신문 기사

‘애들이 무슨 허리가 아프냐’라며 아이들의 허리 통증을 도외시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의 확대를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한 시간에 십 분은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길러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① ㉠-2를 활용하여, 척추 옆굽음증은 초기나 중기와 달리 말기로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키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척추 옆굽음증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2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③ ㉢을 활용하여, 척추 옆굽음증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을 척추 옆굽음증의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제시하는 2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④ ㉠-1과 ㉢을 활용하여, 요즘 들어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척추 옆굽음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척추 옆굽음증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3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1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관형격 조사 ‘의’는 ‘나의 옷’, ‘꽃의 아름다움’에서처럼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형격 조사 ‘의’는 ‘불굴의 투쟁’, ‘불후의 명작’에서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통일이라는 위협’과 같은 의미인 ‘통일의 위협’에서처럼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질서의 확립’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거나, ‘국민의 단결’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낼 때도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ㅅ’과 ‘의/의’가 쓰였는데,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였다. 이 시기의 관형격 조사는 대부분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냈지만,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적의 평호를 드르니[도적이 평정됨을 들으니]’와 ‘아버지의 便安(편안)히 안근 둘 알오[아버가 편안히 앉은 줄 알고]’에서는 명사절의 주어 ‘도적’과 관형사절의 주어 ‘아버지’ 뒤에 모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앞 체언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일 때는 ‘의/의’가 쓰이고, 앞 체언이 유정물이 아니거나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ㅅ’이 쓰일 자리에 ‘의/의’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부터의 니르시는 恩(은)[부처께서 이르시는 은혜]’처럼 ‘부터’와 같은 존칭의 대상인 체언에 ‘의’가 결합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뒤 체언이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말씀(말)’, ‘마음’, ‘의심’ 등일 때는 ‘의/의’가 쓰일 자리에 ‘ㅅ’이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狄人(적인)ㅅ 서리에 가ㅅㅅ오 랑캐의 사이에 가ㅅㅅ어’나 ‘國人(국인)ㅅ 의심[나라 사람들의 의심]’처럼 ‘狄人(적인)’이나 ‘國人(국인)’과 같은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 체언에 ‘ㅅ’이 결합하기도 했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군은 조정으로부터 충무공의 칭호를 받았다.’에서의 ‘의’는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② ‘세월이 나의 젊음을 빼앗아 갔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낸다.
  - ③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추구한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 ④ ‘80도의 물에는 누구도 쉽게 손발을 담그기 힘들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낸다.
  - ⑤ ‘판사는 범죄자의 반성을 믿지 않았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分(분)은 **목수피** 그지라 段(단)은 **모미** 일구리라  
[분은 목숨의 끝이다. 단은 몸의 형태다.]
- ㉡ **아희** 시절부터 ㅅ ㅅ 날개를 ㅅ ㅅ 거스리니라  
[아이(의) 시절부터 ㅅ ㅅ 날개를 매만지는구나!]
- ㉢ **聖人(성인)의** ㅅ ㅅ ㅅ 법(법)이로소니  
[성인께서 가르치신 법이니]
- ㉣ **중생의** ㅅ ㅅ ㅅ 호고져 호물 보아  
[중생의 마음이 하고자 함을 보아]
- ㉤ **世人(세인)의** ㅅ ㅅ ㅅ ㅅ(가차)ㅅ 하사  
[세상 사람의 말을 빌리시어]

- ① ㉠의 ‘목수피’와 ‘모미’는 각각 모음 조화에 따라 ‘의’와 ‘의’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 ② ㉡의 ‘아희’는 뒤 체언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일 때, ‘의/의’가 쓰일 자리에 ‘ㅅ’이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 ③ ㉢의 ‘聖人(성인)의’는 관형격 조사가 앞 체언이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ㅅ’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 ④ ㉣의 ‘중생의’는 관형격 조사가 앞 체언이 명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ㅅ’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 ⑤ ㉤의 ‘世人(세인)의’는 뒤 체언이 ‘말씀’임에도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 뒤에는 ‘의/의’가 쓰인다는 원칙이 지켜진 사례로 볼 수 있군.

3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납품할 물건을 배에 실어 보냈다.
- ② 오랜 시간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다.
- ③ 그는 얼굴 혈색이 빨개 짙어 보였다.
- ④ 반죽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주었다.
- ⑤ 어느새 정상에 이르러 일출을 볼 수 있었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바탕 국어연구소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지명:** 아직 과제 다 못 끝냈어? 연극 보려면 서둘러야 해.  
**현진:**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봐.  
**미연:** 나도 곧 끝나. 과제 끝난 뒤에 ㉠ 그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명:** ㉠ 우리 모두 과제는 ㉡ 어제 끝내자고 말한 건 ㉢ 너희였잖아.  
**현진:** 가능하면 ㉣ 그렇게 하자는 거였지. 미안해.  
**미연:** 현진이 ㉤ 이렇게 하자. 과제는 나중에 하고, 지금 출발하기로. 아 참, 지혜는 극장에 먼저 ㉥ 와 있는 거지?  
**지명:** 응, 우린 거기 ㉦ 가서 지혜랑 만나면 돼. 그런데 내가 너무 재촉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미연:** ㉧ 방금은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  
**현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제 ㉨ 금방 끝낼 수 있는데…….

- ① ㉠과 ㉡ 모두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② ㉠은 ㉡과 달리 가리키는 대상에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과 ㉣은 모두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는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⑤ ㉧은 ㉨과 달리 발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을 가리킨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수식언 중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가 문장에 사용될 것.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일 것.
-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특수 어휘가 문장에 사용될 것.

- ①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옷을 사주셨다.
- ② 학생들은 어려운 내용을 선생님께 여쭙다.
- ③ 어머니는 할머니를 온갖 정성으로 모셨다.
- ④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옛 추억을 들려주셨다.
- ⑤ 발표자는 청중들께 여러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40~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번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학생회 소식통’ 시간입니다. 현재 접속자 수가 무려 311명으로, 최대 접속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은 교내 정기 문화 행사의 좌석 배정과 관련해 학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학생회장이 안내하겠습니다.

**학생회장:** 안녕하세요? ㉡ 우리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예술인들을 초청해 강당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전에 좌석이 배정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명이 여러 자리를 맡아 친구들끼리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A] **수민** 맞아. 무대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다가 다치거나 다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수민 학생이 이야기한 상황,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학생회에서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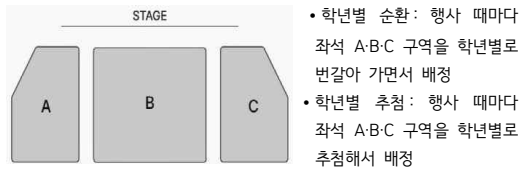
1. 교내 정기 문화 행사에 좌석 배정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404	79	47	530	549

2. 좌석 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첨
응답 수(명)	221	183

\* 참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지난주에 학생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좌석 배정 방식을 정했습니다.

[B] **영우** 설문지에도 화면처럼 좌석 배정 방식이 설명돼 있어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었어. 학생회 훌륭해!  
**하영**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두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학년별 응답 결과는 알 수 없나요?

영우 학생, 감사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석은 학년별 순환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둘째, 좌석 배정은 이번 정기 문화 행사부터 적용되며, 1학년은 A 구역, 2학년은 B 구역, 3학년은 C 구역 좌석에 배정됩니다. 셋째, 각 학년의 좌석

배정은 A, B, C 순서로 순환됩니다. 즉, 다음 분기 문화 행사에 1학년은 B 구역, 2학년은 C 구역, 3학년은 A 구역 좌석에 배정됩니다.

[C]

- ⓐ 상은 저는 3학년인데요, 3학년은 참석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두 번 남아서 그 방식대로라면 B 구역은 못 앉아요. 이 점을 고려해 방식을 다시 세워 주세요.
- ⓑ 현서 학년별 추천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실현 전에 그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진행자: ⓐ 학년별 좌석 배정 방식만 안내해 주셨는데요. 반면, 개인별 좌석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학생회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진행자: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주원 197명 읽음

2. 좌석 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천
응답 수(명)	221	183

○○고 친구들 방송 봤나요?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면 좌석 배정 방식의 선택 항목이 뜬금없이 제시되어서 그 경위가 궁금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을 내부 회의로 정하지 말고 추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새로 정하면 불만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호응한 건 좋았지만,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답을 하지 않은 건 아쉬웠어요.

학생회 공식 카페 가기 (클릭: 학생회에 전달 의견은 여기서)

댓글 창 열었으니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해 의견 나눠요.

83 댓글

지윤: B 구역 좌석을 3학년부터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

유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1:26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이번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관심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상대가 안내하지 않은 사항을 밝히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화면에 제시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학생회장은 학생이 한 발화를 재진술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수민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 영우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에서 내린 결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B]: 하영은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④ [C]: 상은은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이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⑤ [C]: 현서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좌석 배정 방식의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번 방송과 관련한 내 의견을 누리 소통망에 올려야지. 우선 ㉠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과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지. 또 ㉢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야지.

- ① ㉠: 두 좌석 배정 방식이 선택 항목이 된 경위를 밝히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 ②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칭찬하는 말에는 감사를 표하며 호응했지만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 ③ ㉢: 설문 조사의 방법과 시점을 설명하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 학생회 공식 카페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한 학생회장의 말을 고려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 이번 '학생회 소식통' 방송을 본 학생들이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의 안내가 곧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 '마다'를 사용하여, 문화 행사가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문화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보조 동사 '주다'를 사용하여,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안내를 애써서 적극적으로 하려 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의존 명사 '중'을 사용하여, 반별, 개인별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안내서이고, (나)는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상	제한 없음
이용 절차	이용자 신청 → 관리자 심사 → 관리자 통보
예약 시기	2023.01.01. ~ 12.31.
예약 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 가기 (클릭)
예약 취소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 요금	유료 요금 안내 (클릭)
문의 전화	01-234-5678

**\* 실시간 예약 현황**

2023년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상세 내용**

- 규모 및 장비
  - 규모: 360m<sup>2</sup> (204석)
  - 장비: 빔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조명 장비, 마이크
- 이용 제한
  - 정치적 선전·선동, 종교 활동,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 근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클릭)

(나)

2023년 10월 13일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여운  
<https://□□.go.kr/guide>

연극부 선생님 이번 동아리 연극제 장소로 하늘 강당을 알아보고 있구나?

네. 여운

방금 캡처한 실시간 예약 현황인데요, 연극제 기간에 대관할 수 있는데 대관 요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비싸서요. 괜찮을까요?

연극부 선생님 요금 안내를 클릭해 봤는데, 그곳에 있는 장비 이용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관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장비 이용 요금은 안내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내일 전화로 문의해 볼게요. 여운

연극부 선생님 그래.

2023년 10월 14일

연극부 선생님 여운아, 문의해 봤니?

네. 방금요. 대관 요금에 장비 이용 요금이 포함된 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대요. 여운

연극부 선생님 방금 캡처한 ... 대관 요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비싸서요. 괜찮을까요?  
나 [답장] 대관 요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비싼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요. 그럼 하늘 강당 대관 신청할게요. 여운

연극부 선생님 그래. 대관 확정 통보받으면 선생님께 알려줘. 그리고 홍보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 동아리 부원들과 논의해 주렴.

네. 아 참, 포스터에 약도 넣어야 하죠? 여운

'장소 안내'에 있는 약도 넣을게요. 여운

연극부 선생님 그래.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당의 내부 모습을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전달했다.
- ② 실시간 예약 현황을 음영의 차이를 통해 제시했다.
- ③ 이용 절차를 단계별 행위의 주체를 밝히며 제시했다.
- ④ 예약 방법은 예약 가능한 경로들을 나열해 제시했다.
- ⑤ 이용 제한은 핵심 내용을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해 표시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군.
- ② (나)의 이용자들은 (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탕 0회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

# 2025학년도 바탕국어콘텐츠



## 바탕 모의고사

### 수능 대비 실전 훈련

- 전 문항 2025학년도 신규 제작
- 최신 수능과 동일한 체제의 실전 모의고사(총 13회)
-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반영(\*1회 제외)

TIP: 바탕 성적 관리 페이지([grade.battant.net](http://grade.battant.net))로 실력 점검

## BON 바탕 독서편

### 공통과목 기본 학습

- 바탕 자작 '독서' 모의고사 10회분(총 3권)
- 권 당 30세트, 140제 수록(독서론 제외)

TIP1. 주간 학습량을 산정한 후 규칙적으로 학습  
Tip2. 자신의 독해 방법을 해설과 비교 후 교정



## BON 바탕 문학편

### 공통과목 기본 학습

- 바탕 자작 '문학' 모의고사 10회분(총 3권)
- 권 당 40세트, 170제 수록

TIP1. 주간 학습량을 산정한 후 규칙적으로 학습  
Tip2. 자신의 독해 방법을 해설과 비교 후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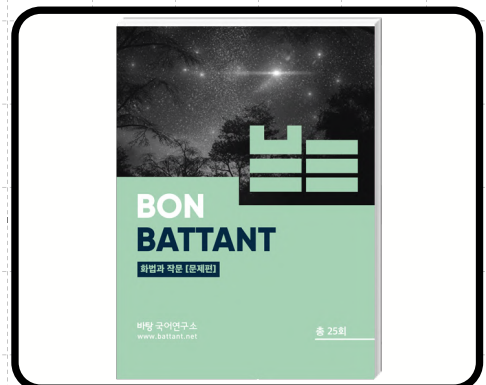


## BON 바탕 화작편

### 선택과목 기본 학습

- 바탕 자작 '화법과 작문' 모의고사 25회분
- 총 275제 수록

Tip1. 학습 시기와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학습  
Tip2. 유형별 제시문 구조와 문항 개발 원리 숙련







## BON 바탕 인매편 선택과목 기본 학습

- 바탕 자작 '언어와 매체' 모의고사 15회분+언어 200제
- 총 365제 수록

- Tip1. 학습 시기와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학습
- Tip2. 유형별 제시문 구조와 문항 개발 원리 숙련
- Tip3. 개념 등의 기본 학습 선행 후 실전 학습용으로 활용

## 기출 MEET 바탕 평가원 기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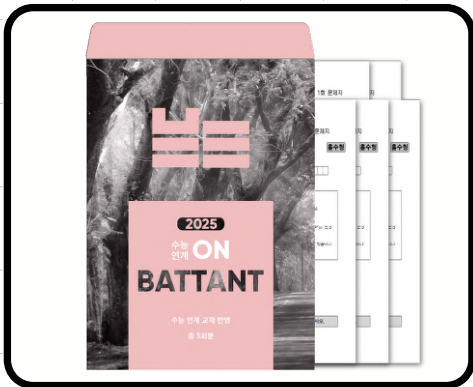
- 최신 3개년 평가원 기출 문항+바탕 출제진 집필 해설
- 문제: 22~24학년도 6평·9평·수능 시험지 형태 그대로 수록
- 해설: 작품·제시문 분석 및 전 문항 선지별 자세한 해설 수록
- Tip. 연초부터 꾸준히 풀이하고 복습하면서 N회독



## 수능 연계 ON 바탕 공통과목 집중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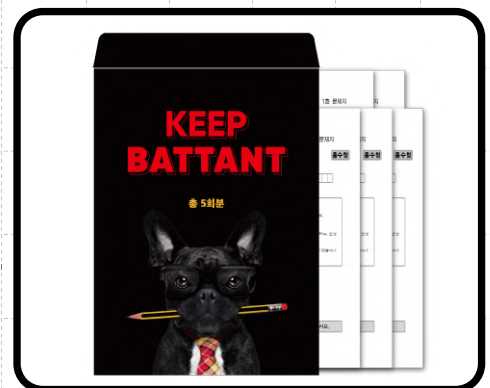
- 바탕 자작 '독서+문학' 모의고사 5회분
- 최신 수능과 유사한 비율로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반영

- Tip1. 실제 수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간 제한하여 풀이
- Tip2. 여름방학 동안 수능 연계 교재와 병행 학습



## KEEP 바탕 파이널 실전 훈련

- 바탕 자작 실전 모의고사 5회분
- 최신 수능과 유사한 비율로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반영
- Tip1. 9평 이후 파이널 기간 실전 훈련
- Tip2. 바탕 모의고사와 병행하며 80분 시간 제한 훈련



# 2024학년도 수험생들의 후기

## 박준우

〈바탕 모의고사〉 문제가 다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문학과 독서에서 중요한 제재를 다루기 위해 노력한게 보였고, 해설지가 세세해서 풀고 분석하기 편했습니다. 모의고사 속 세트 간 밸런스가 적절했고, 독서가 과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수능과 비슷해서 실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지민

〈본바탕 화작편〉, 솔직히 인터넷에서 너무 지엽적이라는 평을 봤지만 사서 풀었다. 진짜 사실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 다 맞는 세트는 거의 없었고 한 세트 당 2~3개는 꼭 틀렸다:: 원래 난 화작을 불안불안하게 풀었고 1~2개까지도 잘 틀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탕 화작을 다 풀고 신기하게 모든 평가원과 사설 화작에서 하나도 틀리는 게 없더라.. 시간 단축은 덤이었다. 이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갔다. 이번 수능 화작 쉽지 않았다. 몇 번 덜컹했다. 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좋았다. 바탕 화작에서 다 경험해 본 유형이었고, 답이 빠르게 보였다. 화작을 다 푸니 겨우 13분이 지나있었고 채점해보니 다 맞았더라. 이제 바탕의 화작은 가장 평가원과 흡사한 n제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다.

## 권기민

기존 평가원에선 고난도 독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학은 EBS 연계를 믿고 비교적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평가원에서부터 문학이 만만치 않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본바탕 문학편〉은 어려운 지문이나 고난도 내용 일치 문제가 많아 실전 비연계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변화한 시험 기조에 맞추어 본바탕으로 학습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민지

올해 〈바탕 모의고사〉를 애용한 학생으로서 만족했습니다. 사실 국어는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요. 평가원스러운 질 좋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도 바탕은 정말 퀄리티 대박입니다! 제가 놀랐던 건 문제도 문제지만 그 뿐만 아니라 문제 분석이었습니다. 등급컷은 물론이고, 각 선택지 선택 비율까지 알려주는 곳은 정말 이곳 "바탕" 뿐일 겁니다. 선택지 비율은 제가 어떤 매력적 선택지에 낚였는지, 틀린 문제가 단순 실수인지, 실력인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서비스도 이용했었는데요, 답변 속도도 빠르고 과외쌤처럼 친절, 명쾌! 덕분에 공부 잘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 손세일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국어 실모로 〈바탕 모의고사〉 13회를 선택하여 풀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수능스러운 독서 지문들은 틀려도 의문 없이 틀린 이유가 보였고, 문학 지문들은 절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풀다 의문사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 화작 문제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수능 화작 문제 중 고난도로 평가받았던 45번을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수능이 없었는데 〈바탕 모의고사〉 덕분에 '실전 연습'과 '함정 문항에 대한 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 이원준

N수생의 경험에서, 아무리 개념을 다 알고 기출을 열심히 풀어도 수능 날 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 '언매'였습니다. 그래서 〈본바탕 언매편〉을 통해 제 부족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했고, 고퀄리티의 참신한 문항들을 통해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언매 선택자분들에게는 〈본바탕 언매편〉을 강추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탕  
0회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정답

공통 과목	1	③	2	④	3	②	4	②	5	⑤	
	6	②	7	①	8	①	9	③	10	④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①	18	④	19	①	20	①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⑤	27	⑤	28	⑤	29	③	30	①	
	31	②	32	③	33	④	34	⑤			
선 택 과 목	화법 과 작문	35	④	36	④	37	⑤	38	②	39	③
		40	④	41	①	42	⑤	43	④	44	②
		45	③								
	언어 와 매체	35	③	36	④	37	③	38	⑤	39	③
		40	⑤	41	⑤	42	③	43	④	44	④
	45	②									

해설 - 공통과목

[1~3] (독서)

(독서 방법론) 「철학 텍스트 독서법」

제시문 내용 정리

- 주제: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태도
- 짜임
  - 1문단: 철학 텍스트 구성 내용과 필요한 태도
    - 철학 텍스트 구성 내용: 철학적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이 고찰한 논의와 그에 따른 논증
    - 필요한 태도: 논의와 논증 내용 이해 & 추론의 하자 여부 판단
  - 2문단: 철학 텍스트 읽기의 구체적 태도
    - a. 서문 먼저 읽기 → 본문 논의 미리 파악
    - b. 낯설거나 의미가 어색한 용어는 사전을 통해 그 의미 파악 (∵ 철학 용어는 낯선 경우가 많음 & 일상에서와 달리 추상적 개념인 경우도 많음 & 몇몇 용어는 철학자마다

-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임
- c. 난해한 부분 → 다음 부분을 읽은 후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이 효과적
- d.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잔술 (for 이해의 명료화 & 기억의 공고화 & 이해의 점검)
  - ↳ if, 이 절차에서 난항 → 이해 부족의 증거
- 3문단: 하자 있는 논증에 대한 태도로서 '자비의 원칙'
  - if, 특정 논증의 추론에 하자 발견
    - ↳ a. 하자 규명
    - ↳ b. 자비의 원칙 적용
      - ↳ 합당한 결론으로 간주 & 논증 재구성해 보는 태도 (∵ 독자가 전제를 보충하면 하자가 없는 논증이 될 수도 있음)
- 4문단: 철학 텍스트 읽기 방법의 적용
  - 인문학 외의 다른 분야의 텍스트에도 적용 가능

1. [출제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③

① 철학 텍스트에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

[1]-① 철학 텍스트에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이 고찰한 논의와 그에 따른 논증이 제시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철학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일상에서 쓰일 때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2]-② 한편 철학 용어는 낯선 경우가 많고 일상에서 쓰는 용어라도 철학적으로는 추상적 개념인 경우도 많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답]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태도는 인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에만 한정되는 태도이다.

[4]-①~②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독서 태도는 비단 철학 등 인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학, 경제학, 물리학 등 다른 분야의 텍스트를 읽을 때 역시 이러한 독서 태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논증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① 철학 텍스트를 읽는 중 특정 논증의 추론에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철학 텍스트를 읽을 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이해를 보류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내용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②-⑤ 텍스트를 읽는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다음 부분을 읽은 후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이 이해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이해 **정답** ④

[A]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철학 입문서를 읽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서문부터 읽어 보니 이 책이 ㉠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 칸트가 순수 이성의 개념으로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읽을 때, ㉡ 그 용어가 내가 알던 의미와 다른 것 같았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데아는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는 용어였다. 이를 통해 ㉢ 칸트 철학에서의 이데아 개념은 알게 되었지만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은 이해가 힘들었는데, 4장에서 헤겔의 형이상학을 해설한 부분을 읽고 나서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 내가 쓰는 언어로 풀어서 말해 보는 일을 시도해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① ㉡는 학생이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파악한 본문의 논의이다.

[A]-① 본문을 읽기에 앞서 서문을 먼저 읽음으로써 본문의 논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메모> 본문을 읽기 전에 서문부터 읽어 보니 이 책이 ㉠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풀이** 위와 같이 [A]와 <메모>를 연결하면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는 여러 철학자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A]-③ 게다가 몇몇 용어는 철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  
 <메모> 3장에서 칸트가 순수 이성의 개념으로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읽을 때, ㉡ 그 용어가 내가 알던 의미와 다른 것 같았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데아는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는 용어였다.

**풀이** 위와 같이 [A]와 <메모>를 연결하면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학생이 사전을 통해 알게 된 특정 철학 용어의 개념이다.

[A]-④ ~ 사전을 통해 그 용어가 해당 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메모> 사전을 찾아보니 이데아는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는 용어였다. 이를 통해 ㉢ 칸트 철학에서의 이데아 개념은 알게 되었지만 ~

**풀이** 위와 같이 [A]와 <메모>를 연결하면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답** ㉣는 학생이 그 부분을 다시 읽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게 된 내용이다.

[A]-⑤~⑥ 텍스트를 읽는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다음 부분을 읽은 후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이 이해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내용이 이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진술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A]-⑧ 이 절차에서 난항을 겪으면 그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메모> ~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은 이해가 힘들었는데, 4장에서 헤겔의 형이상학을 해설한 부분을 읽고 나서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내가 쓰는 언어로 풀어서 말해 보는 일을 시도해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풀이** 위와 같이 [A]와 <메모>를 연결하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진술해 보는 절차에서 난항을 겪었는데, 이는 해당 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⑤ ㉤는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절차이다.

[A]-⑥~⑦ 특정 내용이 이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진술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명료화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는 ~ 절차이다.

<메모> ~ 칸트의 순수 이성을 해설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 내가 쓰는 언어로 풀어서 말해 보는 일을 시도 ~

**풀이** 위와 같이 [A]와 <메모>를 연결하면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주요 개념의 적용 **정답** ②

<보기> 분석

① 자비의 원칙: 논증의 결론이 합당하다고 간주하고 해당 논증을 최선의 논증으로 재구성해 보는 태도  
 → 적용 방식: 맥락적으로 파악 가능한 전제를 보충

<보기>의 논증에 자비의 원칙 적용  
 · 전제 1: 갑은 약물을 복용하였다.  
 · (맥락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전제 2)  
 \_\_\_\_\_  
 · 결론: 따라서 갑은 법을 위반하였다.

① 갑은 불법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

**풀이** 이 진술은 전제 1과 결합하여 결론을 참으로 이끌지

못한다.

- ② **정답** 갑이 복용한 약물은 불법 약물이다.  
**풀이** 이 진술은 전제 1과 결합하여 결론을 참으로 이끈다.
- ③ 갑은 불법 약물의 종류를 알고 있다.  
**풀이** 이 진술은 전제 1과 결합하여 결론을 참으로 이끌지 못한다.
- ④ 갑은 타의에 의해 그 약물을 복용하였다.  
**풀이** 이 진술은 전제 1과 결합하여 결론을 참으로 이끌지 못한다.
- ⑤ 갑이 약물을 복용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풀이** 이 진술은 전제 1과 결합하여 결론을 참으로 이끌지 못한다.

[4~7] (독서)

(인문 + 사회) 「벌린의 자유론」

제시문 내용 정리

- 주제: 벌린의 자유론
- 짜임
  - 1문단: 벌린의 자유 개념에 대한 규정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 영국의 사상이 벌린의 자유 개념에 대한 구분 양상
  - 2문단: 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 근대 사상이 밀이 말한 해악의 원리 즉,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가 보장된 상태
      - 홉스의 자유인과 관련된 개념에 그 맥이 닿아 있음
        - ▶ 홉스의 '자유인'에 대한 정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인간
      - 다만 홉스가 규정한 자유인들은 법에 의해 자유를 보장받는 반면, 벌린이 규정한 소극적 자유는 법에 의한 보장을 그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는 않음
  - 3문단: 적극적 자유 개념의 내재적 문제
    - 적극적 자유
      - : 개인이 자신에 관한 일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태
    -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 : 모든 개인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개인의 판단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함
        - 합리적 판단이 빠를수록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로 귀결됨
    - 적극적 자유 개념의 내재적 문제
      - :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 되는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
        -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 곧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이 될 수 있음

- 4문단: 적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 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의식
    - :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이 누군가의 적극적 자유 실현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
    - : 진리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 → 그 진리를 먼저 인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로 연계 → 그 소수가 대중을 합리적으로 이끌면 유토피아적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낳게 됨
      - 이러한 믿음은 전체주의의 기초가 됨
      - ∴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남음
- 5문단: 벌린의 적극적 자유 개념의 철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적극적 자유 개념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
    - : 당대 사상가들 중 일부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적 고찰이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 만약 사회 전체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며 창조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자유를 포기한다면 자아 실현과 권리 표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봄
      - 즉, 소수 통치자에 의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다수 시민이 소수 통치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됨을 우려함
- 6문단: 적극적 자유의 새로운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
  -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
    - : 벌린의 입장과는 다른 적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
      - ∴ 벌린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4. **출제의도** 주요 정보 확인

**정답** ②

① 진리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은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다.

4-①~② ~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 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진리는 하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은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선지의 서술은 제시문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② **정답** 사회적 판단은 신속할수록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다수 대중의 적극적 자유 실현을 유도한다.

3-③~④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은 빠를수록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 된다. 벌린은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

건인 합리적 이성과 이에 따른 판단 능력을 지닌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을 내릴 시, 그 판단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곧 특정 개인의 적극적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주체적 판단에 대한 배제를 유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계됨을 알 수 있다. 벌린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판단은 신속할수록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소수의 특징인이 다수의 타인들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옳다고 간주함으로써 다수의 타인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제시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자유의 기반으로 본 사상을 계승하는 개념이다.

②-①~② 벌린은 근대 사상이 밀이 말한 해악의 원리가 보장된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는데, 해악의 원리란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자유인이라고 한 흄스의 자유인 개념에 그 맥이 닿아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은 소극적 자유 개념을 밀의 해악의 원리 개념에서 차용하였으며, 이는 흄스의 자유인 개념과도 그 맥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악의 원리는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유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모두 불간섭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 영향을 받은 벌린의 소극적 자유 개념은 불간섭주의를 자유의 기반으로 보는 사상의 계승을 통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제시문에 부합한다.

- ④ 벌린의 동시대 사상가 중 일부는 모두가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면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았다.

⑤-①~③ 당대 사상가들 중 일부는 ~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적 고찰을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면 ~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의 동시대 사상가 중 일부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비판적 고찰을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할 경우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제시문에 부합한다.

- ⑤ 자유에 대한 벌린의 입장 변화에 비판이 제기된 이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⑥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벌린의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적극적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벌린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극

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초기에 정립한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거치며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벌린의 입장과는 달리, 적극적 자유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제시문에 부합한다.

5. 출제의도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⑤

- ①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벌린은 근대 사상이 밀이 말한 해악의 원리가 보장된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는데, ~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자유인이라고 한 흄스의 자유인 개념에 그 맥이 닿아 있다. 다만 ~ 벌린이 규정한 소극적 자유는 법에 의한 보장을 그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흄스와 달리 벌린은 소극적 자유가 법에 의한 보장을 그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자신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③-② 그는 자신이 제시한 ~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모든 개인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이 존재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판단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깨달았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의 적극적 자유 개념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이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벌린은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선될 때 비로소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함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타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다.

③-④ ~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은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④~① 벌린이 이처럼 자신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이 누군가의 적극적 자유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은 특정 개인의 적극적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적극적 자유 실현에 있어 장애, 즉 타인의 적극적 자유 실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일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전체주

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③-② 그는 자신이 제시한 ~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모든 개인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 이 존재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판단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깨달았다.

④-①~② 벌린이 이처럼 자신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이 ~ 합리적 이성의 근원이 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는 ~ 이러한 믿음이 전체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았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은 일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이에 따른 판단을 토대로 적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지만, 일원론적 세계관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정답** 각자의 자유에 대한 침범이 없으려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

④-③ 이에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남게 되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벌린은 자신이 구분하여 규정한 자유의 두 개념 중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고 적극적 자유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두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벌린은 각 유형별 자유 간의 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 구체적 사례의 이해

**정답** ②

<보기> 분석

언론 기관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언론 기관의 활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면 국가와 같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 즉 언론 기관에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언론 기관에 모든 종류의 정보와 의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 소극적 자유

: 해악의 원리 즉,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가 보장된 상태  
→ 언론 기관의 활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않는다면 국가와 같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

☞ 적극적 자유

: 개인이 자신에 관한 일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태  
→ 언론 기관에 모든 종류의 정보와 의견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 But,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다시금 고찰하는 도중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이에 따른 판단의 근원이 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적극적 자유 개념의 내재적 오류를 포착함

☞ 적극적 자유 개념의 내재적 오류에 따른 문제 양상

: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빠를수록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 하에,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 앞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을 항상 옳은 일로 치부하게 함

∴ 특정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 곧 누군가가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로 연계되어 누군가의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의 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

→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

→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남음

① 소극적 자유와 달리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군.

**풀이** <보기> 분석을 통해 벌린은 적극적 자유의 추구하고 실현은 그 자체로 일원론적 세계관의 문제를 내포하기에 적극적 자유의 추구는 곧 전체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는 무관하며, 그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라 볼 수 있다.

② **정답**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면 정보에 대한 기득권을 갖춘 언론 기관에 의해 다수의 적극적 자유 실현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하겠군.

**풀이** <보기> 분석을 통해 벌린은 특정 집단으로서 정보에 대한 기득권을 갖춘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곧 대중이 자신에 관한 일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배제하는 일로 연계되는 바, 대중의 적극적 자유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언론 기관에게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 대중에 대한 적극적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의해 언론 기관의 적극적 자유가 침해당하면 다수 시민이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겠군.

**풀이** <보기> 분석을 통해 벌린은 자신이 정립한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고찰 이후 해당 개념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벌린은 정치 권력자든 언론 기관이든 실현 주체에 상관없이 적극적 자유가 실현될 경우 누군가의 적극적 자유 실현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벌린은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의한 언론 기관의 적극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그 침해가 저지되어 언론 기관이 적극적 자유에 대해 보장을 받는 상황 모두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의해 언론 기관의 적극적 자유가 침해당할

경우, 다수 시민이 소수의 정치 권력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린이 적극적 자유 개념을 포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당대 사상가들 중 일부의 의견이다. 당대 사상가들 중 일부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 자유를 포기한다면 자아실현과 권리 표현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소수 통치자에 의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다수 시민이 소수 통치자에 대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 ④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다루는 언론 기관에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겠군.

**풀이** <보기> 분석을 통해 벌린은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고찰 이후 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통해 유토피아적 세상 즉,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로의 귀결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벌린은 소수의 기득권으로 볼 수 있는 언론 기관에 대한 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를 앞당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언급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시민의 모든 활동 영역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 기관에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겠군.

**풀이** <보기> 분석을 통해 벌린은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고찰 이후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의 추구가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정립한 적극적 자유주의 개념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 기관을 포함한 시민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벌린의 입장이라 볼 수 없다.

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①

○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 깨달았다.  
 → '깨달았다'의 기본형은 '깨닫다'로 문맥상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구리하여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① **정답** 자각(自覺)하였다  
**풀이** '자각(自覺)하다'는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므로 문맥상 '깨달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② 자문(自問)하였다  
**풀이** '자문(自問)하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묻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므로 문맥상 '깨달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자부(自負)하였다  
**풀이** '자부(自負)하다'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마음을 당

당히 가지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므로 문맥상 '깨달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자임(自任)하였다  
**풀이** '자임(自任)하다'는 '임무를 자기가 스스로 맡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므로 문맥상 '깨달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자초(自招)하였다  
**풀이** '자초(自招)하다'는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하다. 또는 제 스스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의 어휘이므로 문맥상 '깨달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8~11] (독서)

(기술) 「지도 학습의 원리와 과적합」

**제시문 내용 정리**

- 주제: 지도 학습 기법의 원리와 과적합 발생의 원인 및 해결책
- 짜임
  - 1문단: 지도 학습과 모델 개념
    - 지도 학습은 다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적 경향에 부합하는 함수를 도출하는 과정
    - 학습 결과를 통해 얻게 된 함수를 '모델'이라고 부름
    - 전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분류
    - 학습 데이터로 학습, 검증 데이터로 평가 수행
  - 2문단: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
    - 임의의 매개변수를 설정한 뒤, 예측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인 손실을 산출
    - 학습 알고리즘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매개변수 갱신
  - 3문단: 검증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과정
    - 검증 데이터와 모델 예측 값 간의 손실을 통해 모델을 평가
    - 평가가 끝나면 매개변수를 재설정하고 주기 종료
  - 4문단: 스팸 메일 판별 시스템의 사례 탐구
    - 부적합 모델의 경우 주기가 부족해 모델이 단순
    - 과적합 모델의 경우 주기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모델이 예외 사례까지 학습하여 예측력 하락
    - 예외 사례를 어느 정도 무시한 적절한 적합도의 모델이 이상적
  - 5문단: 과적합 모델의 수정 방법
    - 과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델 복잡도를 낮춤
    - 모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규화 함수를 사용
    - 정규화 함수는 모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수들의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음



8.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①**

- ㉠ 학습 데이터      ㉡ 검증 데이터      ㉢ 매개변수
- ㉣ 학습 알고리즘      ㉤ 학습 주기

① **정답** ㉤가 시작될 때마다 ㉢가 무작위로 재설정된다.

③-①~② 학습 단계가 끝나면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대한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평가는 학습 데이터의 소진 시점에서 갱신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델이 예측한 값과 검증 데이터의 실제 값 간의 차이인 검증 데이터에서의 손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음 학습을 위해 이 값이 시작 모델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학습 단계가 다시 시작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주기가 시작될 때마다 매개변수가 무작위로 재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학습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를 통해 ㉢가 갱신되면 ㉠의 손실이 줄어든다.

②-①~② 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임의의 매개변수가 주어진 시작 모델이 설정되고, 이 모델에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통해 결괏값을 예측하게 되는데, 학습 알고리즘은 여기서 모델이 예측한 결괏값을 학습 데이터의 실제 결괏값과 비교하면서 두 값 간의 차이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매개변수가 갱신되면 학습 데이터의 손실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를 통해 갱신된 ㉢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②-①~② 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임의의 매개변수가 주어진 시작 모델이 설정되고, 이 모델에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통해 결괏값을 예측하게 되는데, 학습 알고리즘은 여기서 모델이 예측한 결괏값을 학습 데이터의 실제 결괏값과 비교하면서 두 값 간의 차이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③-①~② 학습 단계가 끝나면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대한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평가는 학습 데이터의 소진 시점에서 갱신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델이 예측한 값과 검증 데이터의 실제 값 간의 차이인 검증 데이터에서의 손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음 학습을 위해 이 값이 시작 모델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학습 단계가 다시 시작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검증 데이터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갱신된 매개변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 거듭되는 동안 ㉠와 ㉡는 계속해서 재분류된다.

③-④ ~ 새로운 학습 주기가 시작될 때에는 학습에서의 편향성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재분류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주기가 거듭되는 동안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는 편향성을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재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 진행되는 동안 ㉠가 ㉡보다 많은 양이 활용된다.

①-④ 여기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중은 8:2나 7:3 정도로, 대체로 학습 데이터의 비중을 크게 둔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보다 많은 양이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주요 정보 파악 **정답 ③**

① 지도 학습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①-①~② 지도 학습은 특정 영역에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 함수를 도출해 내고 ~ 이때 이러한 지도 학습의 결과로 획득된 함수를 '모델'이라고 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지도 학습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 알고리즘이 진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매개변수가 주어진 모델을 진화시키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모델이 과적합 상태일 때는 매개변수에 부여된 가중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⑤-①~②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게 되면 모델 함수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 함수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모델이 과적합 상태일 때는 매개변수에 부여된 가중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화 함수를 덧붙여 매개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답** 학습 주기가 적어 전체 데이터의 전반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이 부적합 모델이다.

④ ㉠의 모델은 학습 주기의 부족으로 인해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부적합' 모델 ~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는 가급적 무시하고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의 모델이 이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주기가 적어 데이터의 전반적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이 부적합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①~②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게 되면 모델 함수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 함수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③-④ ~ 새로운 학습 주기가 시작될 때에는 학습에서의 편향성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재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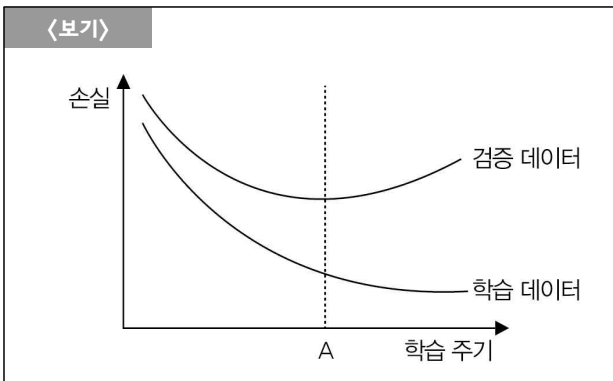
**풀이** 위의 5문단 인용 부분을 통해,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화 함수를 통해 매개변수의 가중치를 부여한 뒤 변수들이 모델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를 다시 새롭게 분류하는 것은 위의 3문단 인용 부분을 통해 학습 주기가 새로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절차일 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지도 학습은 모델이 모든 검증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⑤~⑧ ~ ⑩의 모델은 학습 주기를 충분히 거쳐 낱말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 과적합 모델이 된다. ~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지도 학습을 마쳐야 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지도 학습이 모델이 모든 검증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면 과적합 모델이 되므로, 적합한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지도 학습을 마쳐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 그래프를 통한 핵심 개념 이해 **정답** ④



- ① 지도 학습 초반에 손실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델의 복잡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④-⑤ 이 가운데 ①의 모델은 학습 주기의 부족으로 인해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부적합' 모델인 반면, ~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A 시점까지 학습 주기가 진행된 모델은 전체 데이터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④-⑦~⑧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는 가급적 무시하고 데이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지도 학습을 마쳐야 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A 시점 이후로 학습 주기가 진행되면 모델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④-⑤ ~ ⑩의 모델은 학습 주기를 충분히 거쳐 낱말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델이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과적합 모델은 학습 데이터 중 예외적인 데이터까지 모두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진다.

- ④ **정답** A 시점 이후에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를 통한 평가 횟수를 줄여야 한다.

⑤-①~② ~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게 되면 모델 함수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 함수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과적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인 A 시점 이후에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를 통한 평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화 함수를 덧붙여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통한 평가 횟수와 모델의 복잡도는 관련이 없다.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많이 학습하여 과적합 모델이 되면서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검증 데이터를 통한 평가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뿐이다. 모델의 복잡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줄인다고 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체중이 증가해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체중계를 덜 확인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 시점 이후에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를 통

한 평가 횟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통한 학습 횟수를 줄여야 한다.

- ⑤ A 시점 이후에 모델에 정규화 함수를 도입하여 모델을 수정하면 검증 데이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⑤-①~② ~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규화 함수를 모델에 덧붙이게 되면 모델 함수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매개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 함수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용 이해 **정답** ②

**<보기>**

전력 관리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지도 학습 과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나타난 매일의 온도와 습도 및 각 날짜의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 주기 동안 지도 학습을 진행한 (가) 모델이 과적합으로 판명되었다. 이때 해당 모델의 복잡도는 50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정된 (나) 모델을 이용해 그로부터 1주일간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실제 사용량과 유사한 값을 얻게 되었다.

- ① (가) 모델의 지도 학습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는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고 전력 사용량은 검증 데이터에 해당하겠군.

①-②~③ 지도 학습은 일반적으로 우선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눈 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중은 8:2나 7:3 정도로, 대체로 학습 데이터의 비중을 크게 둔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가) 모델의 지도 학습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는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고 전력 사용량은 검증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날짜의 '온도와 습도'를 '전력 사용량'과 쌍을 맺어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삼아 5년 동안의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학습과 검증 데이터로 분류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정답** (가) 모델의 과적합 상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 정도에 의해 판단되었군.

④-⑤~⑧ ~ ㉠의 모델은 학습 주기를 충분히 거쳐 낱말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 과적합 모델이 된다. ~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시점에 지도 학습을 마쳐야 한다.

⑤-① 학습된 모델에 검증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미 과

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가) 모델이 과적합 상태인지 아니면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상태인지는 검증 데이터의 손실 정도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 모델의 복잡도는 50 이상으로 나타났겠군.

⑤-①~② 학습된 모델에 검증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미 과적합 상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춰야 하는데 ~ 이로써 각 변수들이 모델 함수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풀이** (나) 모델은 <보기>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예측력이 높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적합의 복잡도가 줄어든 상태이고, 위 인용 부분을 통해 복잡도가 줄어들어 예측력이 좋아진 (나) 모델의 복잡도는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0보다 적어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 모델이 예측한 전력 사용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의 차이는 학습 데이터의 손실에 해당하겠군.

②-② 모델이 예측한 결괏값을 학습 데이터의 실제 결괏값과 비교하면서 두 값 간의 차이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갱신 ~

③-② 평가는 학습 데이터의 소진 시점에서 갱신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델이 예측한 값과 검증 데이터의 실제 값 간의 차이인 검증 데이터에서의 손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

**풀이** <보기>의 '수정된 (나) 모델을 이용해 그로부터 1주일간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실제 사용량과 유사한 값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나) 모델이 예측한 전력 사용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 부분을 통해 (나) 모델은 학습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 아니므로 예측한 전력 사용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의 차이는 학습 데이터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시문을 통해서 적절하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보기>의 마지막 상황은 이미 과적합 단계를 거쳐 수정이 이루어진 모델을 기존 데이터가 아닌 이후 데이터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 학습 분야에서는 이러한 평가 역시 일종의 검증 단계로 본다.)

- ⑤ (가) 모델에 비해 (나) 모델은 이상 기온이 나타난 날의 전력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겠군.

④-⑤~⑥ ㉠의 모델은 학습 주기를 충분히 거쳐 낱말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는 예외적인 데이터가 섞여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한 모델은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 모델은 '과적합' 모델이 된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과적합 상태인 (가) 모델에 비해 적합 상태인 (나) 모델은 이상 기온이 나타난 날의 전력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향에 부합하는 날의 전력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17] (독서)

(인문) (가) 「성리학적 격물치지설」

(나) 「실학적 격물치지설과 실학적 인식 체계」

제시문 내용 정리

(가)

- 주제: 성리학적 격물치지설
- 짜임
  - 1문단: 격물치지의 유학적 의미
    - 격물치지
      - : 고대 유학의 경전인 『대학』에서 도덕적 수양과 그에 근간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조목
      - : 12세기 신유학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희에 의해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 확장
        - 후대 유학자들의 인식 체계 정립에 큰 영향
  - 2문단: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 : ‘격물’은 구체적 사물의 원리를 궁구하는 과정
      - :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
      - : 개개의 구체적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됨
        - 이일분수(만물은 제각각 형태와 성질이 다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공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음) + 심구중리(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춰져 있음)
  - 3문단: 격물치지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 이이의 해석
    - ‘이일분수’에 대한 이이의 해석
      - :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 → ‘이일’
        - ↳ 모든 사물을 초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이’와 구체적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서의 ‘이’
      - : ‘이’는 구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기’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은 차별성을 갖게 됨 → ‘분수’
    - ‘격물치지’에 대한 이이의 해석
      - : ‘이일분수’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심구중리의 원리를 결합
        - “온갖 일과 물에는 이가 있지 않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온갖 이를 관리하므로 구할 수 없는 이는 없다.”
  - 4문단: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의 인식론적 함의
    -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른 인식 체계
      - : 자연 세계의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존재가 아님
        -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음
        -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로 귀결

(나)

- 주제: 실학적 격물치지설과 실학적 인식 체계
- 짜임
  - 1문단: 실학적 격물치지설의 등장
    - 실학적 격물치지설의 등장 배경
      - : 조선 후기 서구 자연학의 유입으로 자연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성리학을 넘어선 새로운 인식론 내지는 학문의 방법이 모색됨
      - 17세기 이후 실학자들의 인식 체계
        - : 자연 세계를 인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연 세계 그 자체로 파악할 것을 주장
        - :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의 ‘이’가 아니라 자연 세계의 구체적인 성질로서의 ‘이’를 인식 대상으로 설정
          - 이러한 관점에서 격물치지의 의미를 해석한 이론이 ‘실학적 격물치지설’
    - 2문단: 격물치지에 대한 박세당의 해석
      - ‘격물치지’에 대한 박세당의 해석
        - : ‘격물’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개개의 사물이 존재하는 법칙을 탐색하여 그 법칙에 내재한 이치를 파악하는 것
        - : ‘치지’는 격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존재 법칙을 가진 개개의 사물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것
        - :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님이 전제됨
          - 사물은 종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고, 하늘은 그 형태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함
          -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하여 이일분수의 원리 부정
    - 3문단: 흥대용의 인식 체계
      - 만물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라 사물이 종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짐
      - 인물균등론
        - : 인간과 자연 세계의 사물을 대등하게 봄
          - 성리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
          -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사물의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함
      - 이천사물론
        - :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점이나 사물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 자연 세계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추구
          - 심구중리의 원리 부정
    - 4문단: 정약용의 인식 체계와 그 의의
      - ‘이’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
        - : 만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
          -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님
      - 정약용의 인식 체계
        - : 인간은 도덕적 자각 능력을 부여받아 인의예지 실천 가능, 반면 자연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
          -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분명하게 분리함
          - 박세당과 흥대용에 의해 균열이 일어난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부정됨

12.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③

- ①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후대 유학자들의 대립적 견해를 절충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풀이 (가)에서는 고대 유학 경전 『대학』의 조목인 ‘격물치지’를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해석한 주희의 견해를 설명한 뒤, 주희의 격물치지 해석에서 핵심 원리인 ‘이일분수’와 ‘심구중리’가 조선 성리학에서도 근본 명제로 수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가)에서는 유학 경전에서의 특정 조목에 대한 후대 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및 그들이 공유하는 철학적 원리가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중국 유학자와 조선 유학자 간의 해석 대립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가)

③-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일분수’와 ‘심구중리’는 조선에서도 성리학의 근본 명제로 받아들여졌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가)에서는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및 이를 수용한 조선 성리학의 견해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두 진영 간의 해석 대립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정답 (나)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해석 원리로 이해되던 특정 원리가 조선 후기 학자들에게서 부정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

①-①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고대 유학의 경전인 『대학』에서 도덕적 수양과 그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조목이다.

②-① 주희는 학자와 학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던 ‘격물치지’에 대해, ‘격물’은 구체적 사물의 원리를 궁구하는 과정으로 보고,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理)’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았다.

②-③ 이러한 인식은 만물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공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나)

②-③~④ 이러한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에는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사물은 종(種)마다 각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 형체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하였다는 그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한 것으로,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③-②~④ 인간과 자연 세계의 사물을 대등하게 보는 그의 ‘인물균등론(人物均等論)’은 성리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사물의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의식의 소산이었다. ~ 이 역시 자연 세계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그의 자연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④-①~③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박세당과 홍대용에 의해 균열이 일어난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는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분명하게 분리한 정약용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풀이 (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 및 그들의 인식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은 ‘이’가 하나가 아님을 전제하는데, (②-③) 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하여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③-②) 이러한 인식 체계는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③-④) 또한 정약용은 ‘이’가 만물의 공통 원리임을 부정하면서 ‘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④-①) 이러한 인식 체계는 이일분수와 심구중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일분수 및 심구중리의 원리가 주희에 의해 고대 유학 경전 『대학』의 해석 원리로 제시되었다는 내용은 위 인용의 (가) 내용(②-③)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 ④ (나)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선의 유학자가 제안한 개념이 현대 인식론에서 재조명된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

풀이 (가)와 (나)를 통틀어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에 대한 해석 원리로 제시된 개념은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이다. 이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유학자 주희가 도입한 개념이지 조선의 유학자가 제안한 개념은 아니다. 더불어 (나)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부정되는 양상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 그것이 현대 인식론에서 재조명되는 계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유학 경전의 특정 조목의 포괄적 의미를 밝히고 있고, (나)는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학문의 진보와 퇴보가 이어진 과정을 살피고 있다.

풀이 (가)에서는 고대 유학 경전 『대학』의 한 조목인 ‘격물치지’가 주희에 의해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격물치지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과 대립하는 실학적 해석을 다루고 있을 뿐 그러한 해석에 따라 유학이라는 학문의 진보와 퇴보가 이어지는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주요 내용의 이해 **정답** ③

① ‘격물치지’는 12세기 성리학이 집대성되면서 인식론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가)

①-② 12세기에 이르러 신유학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南宋)의 주희에 의해 인식론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격물치지’는, 후대 유학자들이 각자의 인식 체계를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풀이** 위 인용에 나타나듯 ‘격물치지’는 12세기 성리학이 집대성되면서 인식론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인식론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주희는 사물의 원리에는 인간과 분리된 독자적 이치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치지’라고 보았다.

(가)

②-① 주희는 ~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理)’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았다.

②-③ 이러한 인식은 ~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④-①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존재가 아니며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주희는 ‘치지’를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았다. (②-①) 이와 같은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이’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②-③) 이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④-①) 즉, 주희의 관점에서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추어진 보편적 이치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정답** 사물을 지속적으로 궁구하다 보면 ‘이’를 깨닫게 된다는 인식에는 ‘심구중리’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가)

②-②~③ 이러한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개개의 구체적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인간은 어느 순간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만물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공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풀이**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사물을 지속적으로 궁구하면

보편적 이치, 즉 ‘이’를 깨닫게 된다고 보는데, 이는 이일분수의 원리와 심구중리의 원리를 결합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④ 이이는 ‘이’를 정신적 실체로, ‘기’를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 봄으로써 사물의 본성과 형체를 구분하였다.

(가)

③-②~③ 가령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에 따르면, ‘이’는 모든 사물을 초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이’와, 구체적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서의 ‘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일(理一)’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그 구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기(氣)’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분수(分殊)’의 개념이다.

**풀이** 이이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실체도, 존재와 운동의 원리도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 ‘이’의 이러한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일’이다. 한편 그의 이론에서 ‘기’는 사물의 구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사물의 이치가 파악된다는 이론 체계에서만 가능하다.

(가)

④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존재가 아니며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道理)로 귀결된다.

**풀이**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를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위 인용에 나타나듯,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주요 개념의 이해 **정답** ④

- ① 성리학적 격물치지설    ② 실학적 격물치지설

① ①에 따르면, 사물의 존재 법칙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물에 대처할 방안을 아는 것이 ‘치지’이다.

(가)

②-① ~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 즉 ‘이(理)’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으로 보았다.

(나)

②-②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존재 법칙을 가진 개개의 사물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것이 ‘치지’라

고 보았다.

**풀이**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치지’는 격물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원리가 보편적 이치와 일치함을 깨닫는 과정이다. 선지의 서술은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이 아닌 박세당의 실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른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에 따르면,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은 보편적 원리를 인식할 수 있다.

(가)

②-② 이러한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개개의 구체적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인간은 어느 순간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본다.

(나)

①-② 17세기 이후의 실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인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연 세계 그 자체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의 ‘이’가 아니라 자연 세계의 구체적인 성질로서의 ‘이’를 인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②-①~③ 실학적 격물치지설의 선구자인 박세당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개개의 사물이 존재하는 법칙을 탐색하여 그 법칙에 내재한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존재 법칙을 가진 개개의 사물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것이 ‘치지’라고 보았다. 이러한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에는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④-①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풀이** 위 인용의 (나) 내용에 따르면 실학적 격물치지설은 개개의 사물이 존재하는 법칙을 탐색하여 그 법칙에 내재한 이치를 파악하고(격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존재 법칙을 가진 개별 사물을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것(치지)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의 대상은 보편적 도덕 원리나 만물의 공통 원리가 아니라 자연 세계를 이루는 개별 사물의 구체적 성질이다. (①-②) 예를 들어 박세당은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②-③) 정약용은 ‘이’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로 파악했다. (①-②) 이를 종합하면, 실학적 격물치지설은 보편적 원리의 인식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위 인용의 (가) 내용(②-②)에 나타나듯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은 개개의 구체적 사물을 궁구하여 지식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적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은 ㉠과 달리 만물의 작용은 자연 세계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

④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존재가 아니며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는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道理)로 귀결된다.

(나)

③-② 인간과 자연 세계의 사물을 대등하게 보는 그의 ‘인물균등론(人物均等論)’은 성리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사물의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의식의 소산이었다.

④-①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풀이** 위 인용의 (가) 내용, 즉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사물은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④-①)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원리와 결부되어 있다. (④-②) 그에 반해 위 인용의 (나) 내용, 즉 실학적 격물치지설은 자연 세계의 원리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 (③-②) ‘이’는 개별 사물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④-①) 보아 자연 세계의 법칙과 인간의 행동 원리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정답 ㉠은 ㉠과 달리 사물이 종에 따라 각기 다른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나)

②-④ 사물은 종(種)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 형태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하였다는 그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한 것으로,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풀이** 실학적 격물치지설의 선구자인 박세당에 따르면 사물은 종마다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이’가 부여되어 있다. 이는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의 주요 원리인 이일분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박세당만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홍대용이나 정약용과 같은 다른 실학자들 또한 공유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두 이론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⑤ ㉠과 ㉠은 모두 인간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 결과가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가)

④-②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道理)로 귀결된다.

(나)

- ①-② 17세기 이후의 실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인간적 관점에서 아니라 자연 세계 그 자체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
- ④-④ 박세당과 홍대용에 의해 균열이 일어난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는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분명하게 분리한 정약용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풀이**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로 귀결된다. 즉 인간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 결과는 하나의 이치로 귀결된다. 반면 실학적 격물치지설은 자연 세계를 자연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며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구분한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⑤

- ① 주희에게 '이일분수'는 만물의 근원은 하나이므로 궁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원리로서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의 바탕이 되었다.

**(가)**  
②-③ 이러한 인식은 만물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궁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풀이** 위 인용에 따르면 주희의 격물치지 해석은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를 결합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중 이일분수는 만물이 각기 형태와 성질이 다르지만 그 근원이 하나이므로 궁리를 다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 ② 이이에게 '이일'은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고, '분수'는 '이'가 '기'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가)**  
③-②~③ 가령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에 따르면, '이'는 모든 사물을 초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이'와, 구체적 사물에 내재하는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서의 '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일(理一)'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그 구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기(氣)'를 통해 나타나므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분수(分殊)'의 개념이다.

**풀이** 이이에 따르면 '이일'은 정신적 실체로서의 '이'와 구체적 사물의 존재와 운동의 원리로서의 '이'라는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분수'는 '이'가 개별 사물의 구체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기'를 통해 나타나

로 각 사물이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 ③ 박세당이 사물은 종마다 부여받은 '이'가 각기 다르다고 본 것은 만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가 하나라는 '이일분수' 개념을 부정한 것이었다.

**(나)**  
②-④ 사물은 종(種)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 형태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하였다는 그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한 것으로,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사물이 종마다 부여받은 '이'가 각기 다르다고 본 박세당의 견해는 만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가 하나라는 '이일분수' 개념을 부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 ④ 홍대용이 주장한 '인물균등론'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견해가 내재해 있었다.

**(나)**  
③-② 인간과 자연 세계의 사물을 대등하게 보는 그의 '인물균등론(人物均等論)'은 성리학적 인간 중심주의를 타 포함으로써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사물의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의식의 소산이었다.

**풀이** '심구중리'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원리이다. 위 인용에 따르면 홍대용의 '인물균등론'은 인간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던 자연 세계의 원리, 즉 '이'를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했던 의식의 소산이다. 이는 자연 세계의 사물에 내재하는 이치를 인간의 행동 원리와 분리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의 원리는 인간의 원리와는 별개로, 인간의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 즉, 홍대용의 인물균등론에는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견해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 ⑤ **정답** 정약용이 자연 세계를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계로 본 것은 인간이 지닌 도덕적 자각 능력의 근원을 '심구중리'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다.

**(가)**  
②-③ ~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나)**  
④-①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나라고 주장했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정약용은 '이'가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고 주장했다. '이'가 개별 사물에 각기 달리 나타난다는 견해는 인간의 마음 안에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의 원리와 대립한다. 즉, 정약용은 성리학적 격물치지설의 주요 원리인 심구중리를 부정하고 있다. 그가 자연 세계를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계로 본 것은 인간의 이치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분리하기 위함이지, 인간이 지닌 도덕적 자각 능력의 근원을 '심구중리'에서 찾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견해 간 비교 정답 ③

**<보기>**  
19세기의 학자 최한기는 참다운 '이'는 도덕적 인식과 무관한 객관 세계의 '이'이며, 따라서 인간의 감각 기관을 매개로 한 관찰을 통해 객관 세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의 마음에 그 어떤 선형적인 '이'도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① 도덕적 인식과 객관 세계의 '이'를 별개로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과 자연 세계의 '이'를 분리하여 본 박세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②-③~④ 이러한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에는 사물의 존재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사물은 종(種)마다 각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고, 하늘은 그 형체에 따라 그 사물의 '이'를 달리 부여하였다는 그의 이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분리한 것으로, 이일분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풀이** 박세당의 격물치지설에 따르면 사물에는 종에 따라 각기 다른 '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의 행동 원리와 자연 세계에서 만물의 원리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객관 세계의 '이'를 도덕적 인식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최한기의 인식론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② 인간의 마음에 선형적인 '이'가 존재함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심구중리'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주희의 인식 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  
②-③ 이러한 인식은 만물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이므로 공리를 다하면 만물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심구중리(心具衆理)'의 원리가 더해짐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풀이** 최한기는 인간의 마음에 선형적인 '이'가 존재함을 부정하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즉 인간의 마음에 선형적인 '이'가 존재한다는 심구중리의 원리와 배치된다. 즉, 최한기의 인식 체계는 심구중리와 이일분수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주희의 인식 체

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③ 정답 감각 기관에 의한 관찰을 통해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이'를 관리한다고 본 이이와 유사한 인식론을 보이고 있음.

**(가)**  
③-④ 이이는 여기에 심구중리의 원리를 결합하여 격물치지의 원리에 대해 “온갖 일과 물(物)에는 이가 있지 않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온갖 이를 관리하므로 구할 수 없는 이는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④-② 이러한 이론 체계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도리(道理)로 귀결된다.

**풀이** 이이는 이일분수와 심구중리의 원리를 수용하여 격물치지의 원리에 대해 “온갖 일과 물에는 이가 있지 않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온갖 이를 관리하므로 구할 수 없는 이는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온갖 일과 물에는 모두 '이'가 존재하고, '이'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일분수'의 원리에 대응되고,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심구중리의 원리에 대응된다. 심구중리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원리임을 고려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선형적으로 '이'가 내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이와 같은 성리학적 인식론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반면 감각 기관에 의한 관찰을 통해 객관 세계를 이해하여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최한기의 주장에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선형적인 '이'도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최한기의 인식론이 이이의 인식론과 유사하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인간의 마음에는 선형적인 '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본 점에서, 만물의 '이'는 인간이 아니라 만물 자체에 있다고 한 정약용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④-① 정약용 역시 '이'는 만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사물의 종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개별적 성질일 뿐이며, '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 있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정약용은 '이'가 사물의 개별적 성질로, 사물 자체에 각기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마음에 선형적인 '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최한기의 견해와 유사하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⑤ 도덕적 인식과 무관한 객관 세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떠나 '이천시물론'을 주장한 홍대용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③-④ 또한 그는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점도 사물의 관점도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천시물론(以天視物論)'을 주장했다. 이 역시 자연 세계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그의 자연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구중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풀이** 홍대용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천시물론'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자연 세계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홍대용의 인식론은 도덕적 인식과 무관하게 객관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된 인식이라고 보는 최한기의 인식론과 유사하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①

○ 후대 유학자들이 각자의 인식 체계를 ㉠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의 '세우다'는 '서다'의 동사로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정답**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이 우선 과제였다.  
**풀이** 이 문맥의 '세우다'는 제시문에서의 쓰임과 같이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연장자를 마을 대표로 세워 협상에 나서자.  
**풀이** 이 문맥의 '세우다'는 제시문에서의 쓰임과 달리 '마을 대표로'와 어울려서 '어떤 역할을 맡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가족들에게 체면을 세울 만한 성과를 얻었다.  
**풀이** 이 문맥의 '세우다'는 제시문에서의 쓰임과 달리 '체면 따위를 유지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그 순간 눈에 핏발을 세우고 덤비기 시작했다.  
**풀이** 이 문맥의 '세우다'는 제시문에서의 쓰임과 달리 '눈에'와 어울려서 '어떤 모양이나 현상을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길가에 차를 세우려면 먼저 주변을 살펴야 한다.  
**풀이** 이 문맥의 '세우다'는 제시문에서의 쓰임과 달리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을 어느 한 곳에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1] (문학)  
(현대소설) 서정인, 「강」

작품 분석 및 정리

- 주제: 비개성화되고 소통이 부재한 현대인의 모습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삶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거리 자체보다는 주제 의식에 비중을 두고 환상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혼삿집에 가는 세 사내와 우연히 만난 술집 작부인 여자의 이야기로, 인물들이 나누는 평범하고 단편적인 대화나 행동, 외적인 풍경들이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세 사내는 소시민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작품은 그들의 무기력하고 쓸쓸한 삶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은 크게 두 공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삿집을 찾아가는 길의 버스 안 장면, 군하리의 술집과 여인숙 장면이다. 두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하나의 중심축으로 엮이지 않는, 개별 사건의 나열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제시문 내용 분석
  - ① 박 씨(고깔모자를 쓴 사람)와 여자의 대화  
"어디까지 가세요?"/"군하리까지 가요."
  - ② 이 씨(잠바를 입은 사나이)와 김 씨의 대화  
"미스타 김은 어디서 입대를 하셨소?"/"나? 아, 내! 나, 난..."
  - ③ 박 씨와 여자의 대화  
"그래요? 그건 참 재미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가거든요."
  - ④ 이 씨의 독백  
"아, 이놈의 버스는 떠날 줄을 모르냐"
  - ⑤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의 등장  
"이 차, 어디로 가나?"
  - ⑥ 이 씨의 내면 (색안경은 사치품)
  - ⑦ 김 씨의 내면 (장님이 되는 상상)
  - ⑧ 박 씨와 여자의 대화: "집이 거기쇼?"
  - ⑨ 박 씨의 내면(형사를 떠올림)
  - ⑩ 박 씨와 여자의 대화  
"예? 예, 선생님은요?"/"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요"/"호 호 호"
  - ⑪ 김 씨의 내면  
살찐 여자를 안마하는 상상/원래 상상의 내용은 옛 애인의 남편을 안마하는 것
  - ⑫ 누군가의 독백  
"아, 언제 떠날래나?"
  - ⑬ 운전수가 운전석 옆의 문을 통해 앉는 장면 묘사
  - ⑭ 이 씨와 여차장의 대화  
"애, 이제 술술 떠나 불련?"/"네, 곧 가요"

1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 ① 박 씨 옆에 앉은 여자는 애인이었던 김 씨를 몰라본다.  
**풀이** 박 씨 옆에 앉은 여자와 김 씨는 초면이며 김 씨와 애인이었던 사이도 아니다. 김 씨가 색안경을 낀 사람을 보고 자신이 장님이 되는 상상 속에서 애인을 등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② 이 씨는 형사의 단속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고깔모자를 쓴 사람이 형사의 단속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음을,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박 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의 단속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씨가 아닌 박 씨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③ 박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김 씨에게 불만을 가진다.

"미스타 김은 어디서 입대를 하셨소?"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옆엿 사람이 무감동하게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하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창밖만 바라보는 김 씨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잠바를 입은 사람임을,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잠바를 입은 사람은 박 씨가 아닌 이 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김 씨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박 씨가 아닌 이 씨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④ **정답** 김 씨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이진파와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

"호 호 호"  
여자의 웃음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 버린다. ~ 그리고 그는 안마쟁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김 씨가 박 씨 옆에 앉은 여자의 웃음소리로 인해 원래와는 다른 상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래는 옛 애인(눈 먼 자신을 몰라봄.)의 남편을 안마하는 상상이었으나 웃음소리로 인해 살찐 여자를 안마하는 상상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여차장은 버스의 출발 지연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나타낸다.

"애, 이제 슬슬 떠나 볼련?"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풀이** 버스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여차장이 승객에게 미안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19.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 파악 **정답** ①

① **정답** ㉠: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을 주저하고 있다.

㉠ "나? 아, 내, 나, 난..."(☞ 김씨의 대답)  
그는, 외투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김 씨는 입대하던 날의 광경을, 그것이 조금 전에 문득 떠올랐을 때만 달리,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김 씨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더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 상대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모자를 쓴 사람이 모자 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 여자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박 씨의 행동) 여자는 행복한 표정이다. 그 여자는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 아마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쉬울 것이다.

**풀이** 박 씨가 여자의 행선지가 자신과 같은 '군하리'임을 알고 난 후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③ ㉢: 상황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

㉢ "아, 이놈의 버스는 떠날 줄을 모르네!"(☞ 이 씨의 말)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울적하다. 그는 승강구 쪽을 훑어 본다. 차장은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버스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 자신의 물음에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차, 어디로 가나?"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이 ㉣ 고개를 뒤로 발똥 젖히고 차 안을 두리번거린다.(☞ 색안경을 낀 사람의 행동)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

**풀이**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이 "이 차, 어디로 가나?"라고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진 후, 대답을 기다리며 한 동작이므로 적절하다.

⑤ ㉤: 버스가 출발하기를 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 "애, 이제 슬슬 떠나 볼련?"(☞ 이 씨가 여차장에게 하는 말) ~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풀이** 이 씨가 여차장에게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표현으로 버스의 출발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A]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수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께가 허열게 닳은 낡은 코르덴 바지가 떨려 들어온다. 운전수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권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 운전석 옆에 있는 문을 통해 운전수가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운전수가 버스 운전석에 앉는다.'로 간단하게 서술할 수도 있지만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운전수의 모습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시선은 승객들의 눈높이와 동등하다.

- ① **정답**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특정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풀이** 위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 [A]는 운전수가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승객인 등장인물의 시선과 동등하게 묘사한 장면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풀이**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라는 서술은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며 내면을 추측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서술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풀이** 운전수가 버스에 오르는 동작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다각적인 시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건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내용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풀이** [A]에서는 관찰자적 서술자가 인물(운전수)의 동작을 묘사하고 내면을 추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풀이** [A]는 총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자', '-더니', '-고' 등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 문장이 길고 간결하지 않다. 또한 위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 사건 전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보기>

서술 공간은 현실 공간을 서사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서술자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서술 시점과 서술 방식 등 서술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강」의 서술 공간은 특이한데, 사건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고, 인물과 서술자의 시점이나 내면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불연속적으로 사건이 서술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서술이 나타나고, 서술 상황에서 인물의 내면이 삽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서술 공간의 특징을 통해 「강」은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상 간에 인과성도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현대 사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군하리까지 가요.'라는 여자의 말과 '그래요?'라는 박 씨의 반응 사이에 이 씨와 김 씨의 대화 상황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불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풀이** 해설 앞부분에 제시된 '제시문 내용 분석'을 참고하면, 여자와 박 씨의 대화인 ①과 ③ 사이에 이 씨와 김 씨의 군 입대와 관련한 대화인 ②가 삽입되어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불연속적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② **정답** '마음에 꺼림칙하다.'는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와 달리 전지적 서술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의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서술 시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군.
 

**풀이** '마음에 꺼림칙하다.'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환히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에 의한 서술이고,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는 인물을 관찰하고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추측한 관찰자 시점에 의한 서술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선지를 적절한 진술로 바꾸면, ['마음에 꺼림칙하다'는 '아마 점심이라도 먹고 있는 모양이다'와 달리 관찰자에 의한 서술이 아니라 전지적 서술자에 의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서술 시점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군.]이 된다.
- ③ '그 여자는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는 박 씨의 추측인지 서술자의 추측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의 내면이 혼재된 서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풀이** 고깔모자를 쓴 사람(박 씨)이 여자 쪽으로 다가왔을 때의 서술인 '그 여자는 바라는 것이 지극히 작음에 틀림없다. 아마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쉬울 것이다.'는 박 씨의 추측인지 서술자의 추측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대로 '인물과 서술자의 시점이나 내면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색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서술 이후 이 씨, 김 씨, 박 씨에 대한 내용이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군.
 

**풀이** '색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서술 이후 이 씨는 사치품

에 대해 생각하고, 김 씨는 자신이 장님이 되는 상상을 하며, 박 씨는 형사를 떠올린다. 이는 동시에 떠오른 인물의 내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서술자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지 않고 각 인물의 시선과 내면을 옮겨 다니면서 초점 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아, 인제 떠날래나?’는 주체나 상대가 불분명한 발화이고 ‘네, 곧 가요.’는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는 발화라는 점에서, 인물 간 소통의 의도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풀이** ‘아, 인제 떠날래나?’는 발화 주체가 승객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상대 역시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푸념 어린 혼잣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네, 곧 가요.’라는 차장의 대답은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볼 때 대화 상대에 대한 발화 주체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물 간 소통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답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22~26] (문학)

- (고전시가+수필)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나) 정지용, 「다도해기-실적도(失籍島)」

작품 분석 및 정리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주제: 일본의 풍속과 문물에 대한 견문과 감상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김인겸이 영조 39년(1763)에 일본 통신사(조엄)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11개월 동안 보고 들은 일본의 문물 제도와 인정, 풍속 등을 한글로 기록한 8,000여구에 달하는 장편 기행 기사이다.

연경 기행의 경험을 쓴 홍순학의 <연행가>와 함께 대표적인 기행 기사로 꼽히는 이 작품은, 당시 우리나라 친선 사절단의 규모와 조선과 일본의 외교 상태, 그리고 일본의 산천 경치와 인물, 풍속 등을 객관적인 관찰과 더불어 주관적인 비판까지 곁들여 쓰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이 작품은 1편 ‘국내 편’, 23편 ‘일본 편’, 4편 ‘회정 편’으로 나뉘는데, ‘국내 편’은 영조 임금을 알현한 뒤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하여 날씨 때문에 그곳에 45일간 머물렀던 사정을 담고 있다. ‘일본 편’은 부산을 출발하여 대마도와 일기도를 거쳐 오사카성에 머문 뒤에 후지산 근처를 지나 일본의 우두머리인 관백(官伯)이 사는 에도로 가서 국서를 전달하기까지의 수륙 4천 6백여 리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정 편’은 에도를 떠나 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과 왕을 알현한 뒤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일 등을 다루고 있다.

(나) 정지용, 「다도해기-실적도(失籍島)」

■ 주제: 다도해와 제주도의 아름다움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정지용이 김영랑과 함께 다도해와 제주도를 다녀온 뒤 쓴 기행문으로서 「다도해기」 큰 제목 아래 ‘이가락’, ‘해협병 (1)’, ‘해협병 (2)’, ‘실적도’, ‘일편낙도’, ‘귀거래’의 소제목이 붙은 여섯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글이며, 낯선 지방의 풍물에 쉽게 친근해지는 작가의 소탈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2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 ① (가)는 특정 작물을 다른 작물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가)

효자토란 심어두고, 그로 구항한다커늘  
쌀 서 되 보내어서 사다가 썰 먹으니  
모양은 하수오요 그 맛은 극히 좋다  
마같이 무르지만 달기는 더 낫도다

**풀이** (가)는 ‘효자토란’이라는 새로 접한 작물을 ‘하수오’와 ‘마[蓼]’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가)는 인물 간 대화 내용을 인용하여 극적 효과를 내고 있다.

(가)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보되  
[A]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고 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승산(勝山)이 부끄러워 백번이나 사정하고  
고쳐 써서 하온 말이 [B] 예부터 성현(聖賢)네도  
제자의 수수례(授受禮)는 다 받아 계오시니  
소생(小生)이 이것을 예물을 하옵고서  
제자 되기 원하나니 물리치지 마옵소서  
[A] 수수(授受)라 하는 것은 포육(脯肉)으로 하는지라  
어디서 은과 비단으로 예물을 한단 말고  
성현네 계시어도 받을 리 만무하고  
내 무슨 재덕(才德)으로 그대의 스승 될까  
주고받기 다 그르니 집말 말고 가져가라

[A]: 화자(김인겸)의 말 [B]: 승산의 말

**풀이** 위 인용은 (가)의 화자와 승산이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여 극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나)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풀이** (나)는 주로 시각과 청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추자도에 배가 도착해서 본 새벽의 낯선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풀이** (나)는 ‘-비니다’, ‘-비니까’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글쓴이가 체험한 내용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

절한 설명이다.

- ⑤ **정답** (가)와 (나)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풀이** (가)는 '점심 먹고 길 떠나서 / 이십 리는 겨우 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체험한 내용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적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추자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배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 추자도에 도착한 배 위에서 바라본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 ① ㉠: '나'에게 가난한 백성들을 떠올리게 한다.

(가)

이 ㉠ **씨**를 내어다가 우리나라에 심어두고  
가난한 백성들을 흉년에 먹게 하면  
진실로 좋겠으되 시절이 통한하여  
가져가기 어려우니 **씨**받기를 어이 하리

**풀이** '나'는 효자토란의 씨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 '나'에게 선비의 도리를 생각하게 한다.

(가)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 **은화**를 갖고 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풀이** '나'는 '승산'이 글 값으로 '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며 돌려준다. 즉 '은화'는 '나'에게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③ **정답** ㉢: '나'로 하여금 '승산'을 제자로 삼게 한다.

(가)

승산(勝山)이 도로 나가 ㉢ **감자 설탕** 가지고 와  
지성으로 권하기에 조금씩 맛을 보고  
행중(行中)의 시전지(詩箋紙) 열 장으로 답례하다

**풀이** '승산'은 글 값으로 '나'에게 은화를 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가져 온 '은화'를 예물로 받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나'는 제자가 되는 예물에는 '은과 비단'이 쓰이지 않음을 들어 이 역시도 거절한다. 이후 승산이 가져온 '감자 설탕'은 맥락으로 볼 때 '은화' 대신 가져온 글 값이자 감사의 표시이며 이를 지성으로 권하자 '나'는 이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시전지를 준 것이다. 따라서 '나'가 '감자 설탕'을 받고 승산을 제자로 삼은 것은 아니다.

- ④ ㉣: '나'의 상황을 고단하고 위태롭게 한다.

(가)

이십 리는 겨우 가서 날 저물고 ㉣ **큰비** 오니

길이 질기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가마 멘 놈 다섯이 서로 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 전혀 없어 언덕에 가마 놓고  
이윽히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풀이** '큰비'로 인해 길이 엉망이 되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멜 뜻이 없이 쉬고 있으므로 '큰비'는 '나'가 처한 상황을 고단하고 위태롭게 하는 자연 현상이다.

- ⑤ ㉤: '나'의 신분이나 지위를 짐작하게 한다.

(가)

㉤ **가마 멘 놈 다섯이 서로 가며 교대하되**

**풀이** '나'가 가마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여행 중 '나'의 지위나 신분이 꽤 높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 ① 추자도 포구에 내려 상점의 싱싱한 생선들을 구경한다.

(나)

~ 배가 바로 섬에 닿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사이를 두고 닻을 내리고 쉬는 것입니다.

**풀이** 배가 추자도 포구에 접선하지 않았고 글쓴이는 추자도 포구에 내린 적이 없다. 글쓴이는 배에 접근한 목선을 통해 싱싱한 생선들을 구경한다.

- ② 소학생 시절 추자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던 일을 후회한다.

(나)

~ 종래 고무로 지워버리지 못하고 만 이 섬에게 이제 꾸  
사람을 들여야 할까 뵈니다.

**풀이** 글쓴이는 소학생 시절 추자도를 '종래 고무(지우개)로 지워버리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 ③ 추자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닌 듯한 애절한 한을 떠올린다.

(나)

희뚝희뚝하는 적은 목선에 실리어 섬으로 가는 젊은 여자 몇은 간단한 양장까지 한 것이었고, ~ 더 싱싱하고 다혈적(多血的)이고 방심한 것이 아니오리까. 밤에 보아도 건강한 물기가 듣는 듯한 얼굴에 웃음소리 말소리가 물결 위에 또랑또랑 울리며 가는 것입니다.

**풀이** 글쓴이는 추자도로 들어가는 젊은 여자들에게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본다. 따라서 애절한 한을 떠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정답** 추자도로 가는 목선 위의 물자와 사람들에게서 활기를 느낀다.

(나)

~ 노를 저으며 오는 작은 목선(木船)들이 마침 기다렸듯 노란 듯이 몰려와서 사람을 내리우고 짐을 풀고 하며 새벽

포구가 왁자지껄하며 불빛이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웬 짐짝과 물화(物貨)가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것입니까. 또 실리는 물건도 많은 것입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글쓰기가 추자도로 가는 목선 위의 물자와 사람들에게서 활기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낮에 본 추자도와 밤에 보는 추자도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

배가 추자도(楸子島)에 다다랐을 때 잠이 깨었습니다. ~ 이제 달도 넘어가고 밤도 새벽에 가까운 때 추자도의 먼 불을 보니 추자도는 새벽에도 셋별같이 또렷한 것이 아니오리까

**풀이** 글쓰이는 새벽에 추자도에 도착해서 그 풍경을 보고 있다. 글쓰이가 낮에 추자도를 본 모습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비교 파악 **정답** ①

① 음식	② 웃음소리
------	--------

- ① **정답** ②는 화자가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편이고, ①는 글쓰이가 대상의 건강한 모습을 인지하는 단서이다.

**풀이** ②는 화자가 가마 메기를 거부하는 가마꾼들을 달래 길을 떠나자는 의사를 전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이는 음식을 먹은 가마꾼들이 '조금씩 전진'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①는 '건강한 물기가 듣는 듯한 얼굴에 웃음소리 말소리가 물결 위에 또랑또랑 울리며 가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젊은 여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떠올리는 단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②는 화자가 상대에게 이동을 독려하는 매개이고, ①는 글쓰이가 대상의 경솔함을 알게 되는 단서이다.

**풀이** ②는 화자가 가마꾼들에게 이동을 독려하는 매개이지만, ①로 인해 글쓰이가 젊은 여자들이 경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

- ③ ②는 화자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①는 글쓰이가 대상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매개이다.

**풀이** ②를 수단으로 삼아 화자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①는 '몸짓과 웃음이 유심히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아닙니까.'를 통해 글쓰이가 젊은 여자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매개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 ○)

- ④ ②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①는 글쓰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풀이**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은 '지척을 불분하고 망망한 대야중애 / 말 못 하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 오늘 밤 이 경상은 고단하고 위태하다'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큰비'로 인해 '가마꾼'들이 전진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큰비', '가마꾼', '언어 불통' 등이

화자의 처지를 한탄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으며 ②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만일 음식이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세' 부분을 탄식으로 해석한다면 ②를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①로 인해 글쓰이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

- ⑤ ②는 화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①는 글쓰이의 감정을 무뎠게 하는 원인으로 기능한다.

**풀이** ②를 가마꾼들에게 제공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②가 결과적으로 화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제시문에는 화자의 이러한 심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시문에서 ②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방편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단 '만일 음식이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세' 부분을 탄식으로 해석한다면 ②를 화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①로 인해 글쓰이는 생기를 느끼고 있으므로 오히려 글쓰이의 감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보기〉

(가)와 (나)는 여행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기술한 기행 문학이다. 조선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기록인 (가)에는 일본 문인과 나는 필담, 돌발 상황에서의 경험이 제시되면서 예법을 중시하는 선비로서의 면모,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난다. 추자도를 여행하는 기록인 (나)에는 '실적도(문서에서 사라진 섬)'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아주 작은 외딴섬인 추자도에서의 경험과 감상이 담겨 있다.

- ① (가)는 '섬 안 토질이 박하여' '효자토란'으로 '구황한다커늘'에서, (나)는 '새벽 포구가 왁자지껄하며 불빛이 요란해지는 것'에서 작자가 여행지에서 보고들은 풍물이 소개되고 있군.

**풀이** (가)의 '섬 안 토질이 박하여' '효자토란'으로 '구황한다커늘'은 작자가 여행지에서 들은 내용을, (나)의 '새벽 포구가 왁자지껄하며 불빛이 요란해지는 것'은 작자가 여행지에서 직접 본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작자가 여행지에서 보고들은 풍물(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어떤 지방이나 계절 특유의 구경거리나 산물.)이 소개되고 있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다.

- ② (가)는 '종이에 써서 보되', '고쳐 써서 하온 말이'에서 필담을 주고받는 상황임이, (나)는 '배가 바로 섬에 닿'지 않고 '목선에 실리어 섬으로 가'야 하는 데서 추자도가 작은 외딴섬임이 드러나고 있군.

**풀이** (가)의 '종이에 써서 보되', '고쳐 써서 하온 말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일본 문인과 나는 필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고, (나)의 '배가 바로 섬에 닿'지 않고 '목선에 실리어 섬으로 가'야 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아주 작은 외딴섬인 추자도'의 현실(섬이 너무 작아서

직접 배를 댈 수 없고 작은 목선으로 물자와 사람들을 이동 시킴)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가)는 '의에 크게 가하지 않'고 예법에 맞지 않으니 '은'을 '가져가라'고 한 데서 작자의 선비로서의 면모가, (나)는 '소학생 적에는 시험 점수에도 치지 않'던 섬이 '절도는 아닌 것이 틀림없'다는 데서 작자의 변화된 인식이 드러나고 있

**풀이** (가)의 작자는 글 값으로 가져온 '은화'를 예물로 하여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승산'에게 '의에 크게 가하지 않'고 예법에 맞지 않으니 '은'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예법을 중시하는 선비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나)의 작자는 '소학생 적에는 시험 점수에도 치지 않'던 섬 추자도를 '절도(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는 아닌 것이 틀림없'다고 하며 추자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가)는 '갈 길이 전혀 없어', '일행들은 간데없고', '지척을 불분하'는 데서 작자가 경험했던 돌발 상황이, (나)는 '벃장' 안의 '펼 펼쳐 뛰는 생선들'을 보며 '남도 소주'와 함께 '회를 쳐서 먹고 싶'다는 데서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감상이 드러나고 있

**풀이** (가)에서 '갈 길이 전혀 없고', '일행들은 간데없고', '지척을 불분하'는 것은 여행 중 작자에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며, (나)에서 '벃장' 안의 '펼 펼쳐 뛰는 생선들'을 보며 '남도 소주'와 함께 '회를 쳐서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여행지에서 겪은 일에 대한 작자의 감상이 드러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정답** (가)는 '승산'과 달리 필담조차 안 되는 '가마꾼'은 '왜놈'이라며 '음식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 것이라는 데서, (나)는 '여자라는 것은 절도에서도' '다혈적이고 방심한 것'이라는 데서 각각 일본 하층민과 여성을 비판하는 작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

**풀이** (가)의 작자가 '승산'과 달리 필담조차 안 되는 '가마꾼'들을 '말 못 하는 왜놈들'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행태를 '음식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할' 것이라고 야만시하는 데에서 일본 하층민에 대한 멸시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작자는 추자도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들에게서 '싱싱하고 다혈적이고 방심한 것'을 느끼는데, 이는 여자들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서술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활기를 느끼게 한다는 맥락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 ×)

[27~30] (문학)

(고전소설) 작자 미상, 「김원전」

작품 분석 및 정리

■ 주제: 김원의 영웅적 일대기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제작 연대와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고전소설로, 김원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이 근원 설화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설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래 설화인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작품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지하국에 사는 괴물을 퇴치하고 납치된 여자를 구해내어 혼인하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자료집에 따라서는 <괴물에게 납치되어간 세 미녀>·<금돼지의 자손 최치원> 등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 민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설화 중 하나로,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곳에 한 여자가 괴물에게 납치당했다. 여자의 부모가 재산과 딸을 현상으로 내걸자, 어떤 용사가 나타나 여자를 찾아 출발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용사는 괴물의 거처가 지하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곳으로 이르는 좁은 문도 발견하였다. 밧줄을 드리워 부하들을 차례로 내려 보내려 했으나 모두 충도에 포기하고 말아, 드디어 용사 자신이 지하국에 이르렀다. 용사는 우물가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의 물동이에 나뭇잎을 훑어 뿌려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용사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괴물의 집 문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여자가 용사의 힘을 시험하려고 바위를 들어보게 했으나 용사가 들지 못하자, 용사에게 '힘내는 물'을 먹였다. 힘을 기른 용사는 마침내 괴물을 죽이고 납치되었던 사람들을 구하여 지상으로 올려 보냈다. 그러나 부하들은 용사를 지하에 남겨둔 채 여인을 가로채 가 버렸다. 용사는 결국 신령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 오를 수 있었다. 용사는 부하들을 처벌하고 여자와 혼인하였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 ① 인물들의 슬기와 계략에 의해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다.

~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원수와 여러 여자가 아귀를 취하게 하여 잠들게 할 계략(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세웠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막내 공주의 꾀에 의해 아귀의 칼을 획득한 다음, 김원과 여러 여자들이 협력하여 아귀를 퇴치하는 사건이 일단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원이 여관 주인에게 피살된 사건도 용녀가 금고양이로 변신하여 연적을 몰아다 주는 슬기를 발휘하여 여관 주인이 처벌되고 김원이 환생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주인공은 자신이 구출할 인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풀이** 주인공 김원은 세 공주를 포함한 아귀에게 잡혀온 여



러 여자들의 도움으로 아귀를 술에 취해 잠들게 할 수 있었으며, 막내 공주의 도움으로 아귀의 칼을 통해 잠든 아귀를 처치하고 공주들을 구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인물의 대화를 통해 이전 사건의 경과가 드러나고 있다.

선녀가 대답하기를,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대명 도원수 김원이 아귀를 소멸하고 용자(龍子)를 구제하여 돌아오니, 용왕이 사위를 삼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첩과 함께 왔습니다. 형주에 이르러 한밤중에 여관 주인에게 원수가 해를 보옵고, 그놈이 첩을 탈취하려 하였사오니 첩은 여러 가지로 변신하와 지금 조화 중에 있습니다. 원수의 시체는 계양산에 묻혔사오니 타고난 수명이 아직 멀었사옵니다. ~”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과거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악인이 처단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풀이** 세 공주와 여러 여자들을 납치한 아귀가 김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김원을 피살하고 연적을 빼앗았던 여관 주인이 엄한 형벌을 받아 처단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정답** 주인공은 초월적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풀이** 주어진 지문에서 김원이 초월적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귀가 김원의 정체를 천상의 ‘남두성’으로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귀를 통해 김원이 자신의 정체가 ‘남두성’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용녀를 통해서도 김원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참고로 소설 전체적으로 김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때는 둥근 원으로 태어난 김원이 10세가 되어 허물을 벗을 때, 옥황상제가 보낸 선관(仙官)에 의해 자신이 천상의 ‘남두성’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점이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심리) 파악 **정답** ⑤

- ① 아귀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인물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다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귀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두성’(김원)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했기에 김원이 이미 지하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② 원수는 세 공주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아귀의 칼을 훔쳐 오도록 시켰다.

**풀이** 막내 공주가 아귀가 칼을 놓고 잠들도록 유도하여 아

귀의 칼을 훔쳐 김원에게 가져다주지만 이를 김원이 시켰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이후 김원에게 칼을 시험해 보라고 권하는 것에서 막내 공주의 기지로 칼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김원이 세 공주의 재주를 시험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 ③ 막내 공주는 김원의 혼인과 피살 소식을 용녀로부터 직접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풀이** 막내 공주는 김원이 굴에 갇힌 후, 김원과 연락이 없었으므로 김원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황성으로부터 김원에 관한 소식을 듣기 전에 ‘소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막내 공주는 김원이 굴에 갇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유씨 부인은 아들의 소식을 듣자 막내 공주와 함께 아들을 만나기 위해 황성으로 갔다.

~ 유씨 부인과 공주가 기별을 듣고 너무 기뻐서 취한 듯도 하고 미친 듯도 하며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를 못하여 지향 없는 사람 같았다. 공주가 부인에게 고하여 원수를 황성에 가서 뵈옵기를 청하니, 부인이 그 바쁜 마음을 헤아려 허락하였다. 공주가 소복을 벗고 채의(彩衣)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시녀에게 당부하여 금고양이를 잘 먹여 기르라 하고 황성으로 갔다.

원수가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뵈오니 부인이 또한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황성으로 간 것은 공주이며 유씨 부인은 아들 김원을 집에서 만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정답** 용녀는 김원과 이별한 후에 금고양이로 변신하여 막내 공주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공주가 소복을 벗고 채의(彩衣)를 입고 위의를 갖추고 시녀에게 당부하여 금고양이를 잘 먹여 기르라 하고 황성으로 갔다.

이때 금고양이가 원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변신하여 미인이 되어 승상 부부를 뵈니, 승상 부부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답배하였다. 원수가 살펴보니 이는 곧 용녀였다.

**풀이** 위 인용 부분을 통해 용녀가 금고양이로 변신하였으며, 막내 공주와 함께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다. 이는 연적에서 나온 선녀(용녀)의 말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 첩은 여러 가지로 변신하와 지금 조화 중에 있습니다.’를 통해서도 암시되고 있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③**

-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 ㉡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시오면 남두성 잡아야 어찌 근심하리오?”
- ㉢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 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 ㉣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 ㉤ “어찌 구천 리 길에 이곳에 있는고?”

- ① ㉠: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적대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풀이** 아귀는 상한 대가리가 거의 나아가자 ‘남두성을 잡아 죽여 분함을 풀리라.’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적대자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② ㉡: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의 능력을 추켜세우며 방심을 유도하고 있다.  
**풀이** ㉡에서 여자들은 ‘남두성’을 잡는 것은 아귀의 능력으로 보아 아무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이는 아귀의 방심을 유도하여 술에 취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③ **정답** ㉢: 술에 취한 상대방이 실수로 귀한 칼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풀이** ㉢은 막내 공주가 아귀의 보검을 훔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아귀가 술에 취해 실수로 칼을 휘두르면 목숨(잔명)이 다칠 것이 염려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자 기지를 발휘하는 발화이다. 따라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 자칫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뻔한 것을 미리 확인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풀이** ㉣은 아귀의 칼보다 못한 원수의 칼을 사용했더라면 아귀를 처치하지 못하고 화를 입을 뻔했다는 말이므로 미래에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다.
- ⑤ ㉤: 자신이 겪은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의아하고 있다.  
**풀이** ㉤은 원수가 여관 주인에게 피살되었다가, 계양산에서 막 환생했을 때의 발화이다. 황성으로 가는 구천 리 길 도중에 있었는데 자신이 왜 이곳(계양산)에 있는지를 묻는 발화일 수도 있고, 구천 리나 떨어져 있는 황성에 있어야 할 사관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묻는 발화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선지의 이해는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①**

<보기>

「김원전」의 서사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 ‘적강화소’가 결합해 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평민 무사가 여성을 납치한 지하 괴물과 싸워 그 여성을 구해 결혼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민중들의 낭만적 소망을 담고 있다. 한편 적강화소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이겨낸 후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는 주인공의 비범함을 정당화하는 서사적 장치다. 이때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들은 이미 지상계로 내려올 때부터 예정된 것이지, 천상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 ① **정답** 김원이 지하세계로부터 구해 준 용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가 지닌 낭만성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군.

**[종략 부분의 줄거리]** 김원은 세 공주를 지상으로 올려보낸 뒤 굴에 갇히지만 아귀에게 잡혔던 용왕의 아들을 구해 용궁으로 가 용녀와 결혼하고 ~  
 “첩은 동해 용왕의 딸이옵니다. 대명 도원수 김원이 아귀를 소멸하고 용자(龍子)를 구제하여 돌아오니, 용왕이 사위를 삼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첩과 함께 왔습니다. ~”

- 풀이**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여성을 구출한 후에 그 여성과 혼인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낭만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김원전」의 ‘용녀’는 김원이 지하세계에서 구출한 인물이 아니다. 김원은 용자를 구해준 인연으로 용궁으로 가 용녀와 결혼한 것이다. 이는 위 인용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 ② 김원이 대적한 상대가 괴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김원의 시체가 썩지 않았던 점과 용녀가 조화를 부리는 점도 이야기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군.  
**풀이** <보기>에서 환상성(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된 성질.)을 언급한 부분은 ‘지하 괴물과 싸워 그 여성을 구해 결혼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더하여 죽은 김원의 시체가 썩지 않고 평상시와 같았던 점이나 용녀가 연적에서 나와 김원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해주고, 금고양이로 변신하여 지내다가 다시 용녀로 변신하는 등 조화를 부리는 것도 「김원전」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김원이 지하세계로 내려가 머리 아홉 달린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범함은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군.  
**풀이** <보기>에 의하면 적강화소는 주인공의 비범함을 정당화하는 서사적 장치다. 따라서 김원이 머리 아홉 달린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범함은 김원이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었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인물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그 개연성(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김원이 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고, 아구에게 납치된 공주들을 천자의 명으로 구출한다는 점에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민중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풀이** <보기>에 의하면 '지하국 퇴치 설화'는 평민 무사가 여성을 구해낸다는 민중들의 낭만적 소망을 담고 있다. 「김원전」은 평민 무사가 아니라 승상의 아들 김원이, 평범한 여성이 아닌 공주를 천자의 명에 의해 구출하여 설화의 민중성은 감소되고 귀족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김원이 용궁에서 얻은 연적을 여관 주인에게 빼앗기고 피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천상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천상계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풀이** <보기>에 의하면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시련들은 이미 지상계로 내려올 때부터 예정된 것이자, 천상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김원이 용궁에서 지상계로 나와 여관 주인에게 피살되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것을 천상계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다.

[31~34] (문학)

(현대시) (가) 조지훈, 「맹세」

(나)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작품 분석 및 정리

(가) 조지훈, 「맹세」

- 주제: 입을 만나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염원함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사랑하는 입을 향한 화자의 맹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으며, 흰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고, 붉은 마음이 솟이 되고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가 되는 등의 불가능하지만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에게 입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며 거룩한 일월처럼 눈부신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입이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 화자는 피리로 아픈 가락을 연주하며 입을 그리워하고 입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밖에 없다며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나)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 주제: 어둠에 대한 역설적 인식/평범한 광경이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
- 이해와 감상

김기택 시 세계의 미학은 자세히 보기에 주목함으로써 얻어진 역설적 시각과 표현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과 사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치밀하게 관찰하여 그 안에 내재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인의 시각적 집요함은 관찰 대상에 대한 일상적이고 상투화된 인식을 역설적으로 전도시킨다.

이 시는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평범하던 광경이 평소의 일상적 모습을 뛰어넘어, 더는 '잡동사니들',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을 고스란히 다룬다.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에서 사물들이 '제 속에 든 빛'을 '발산'하여 '낡은 빛'을 나누어 어둠이 환하게 보이게 되기까지 시인의 자세히 보기는 끈질기게 지속된다. 결국 시인의 자세히 보기는 어둠을 빛으로, 죽은 듯한 대상을 역동적인 생명체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 ②

- ① (가)는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4연)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9연)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5연)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10연)

**풀이** 4연과 9연은 각 행마다 서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입의 존재가 구현되는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며 5연과 10연은 '나는 울어라'라는 시구가 반복되어 입을 그리는 화자의 내면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정답 (가)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풀이** (가)의 '나는 울어라'라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① '-(어)라'를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보는 견해 ('운다'의 예스러운 표현) ② '-어라'를 어떤 사실을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보는 견해 ('우는구나'라는 의미) ③ '-어라'를 명령형 종결 어미로 보아 자신에게 명령하는 강한 의지를 다지는 말로 보는 견해.(시적 허용)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시에서 부재하는 입을 그리워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나)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었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주고 되비취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풀이** (나)는 ‘잡동사니들’과 ‘물건들’에 생명을 부여하여 이들이 ‘빛’을 지닌 존재이며 더 나아가 그 ‘빛’을 서로 나누는 존재들임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나)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묘사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풀이** (나)는 ‘방’이라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묘사하여 컴컴한 상태에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여 사물이 보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역설적인 인식으로 파악하여 평범한 사물들이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2연)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져 불어넣고  
해 뜬 아침에 죽어 가리야 (3연)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4연)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5연)  
의(義)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7연)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9연)

(나)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풀이** (가), (나) 모두 위 인용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임이 부재한 부정적 상황과 임을 재회하는 이상적 세계가 도래했을 때의 긍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어둠이 깔린 방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도 점차 어둠에 적응하여 어둠 속의 빛을 발견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 ① ‘뜨거운 가슴’은 갈등의 해소를, ‘붉은 마음’은 임을 향한 그리움을 표상한다.

**풀이**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라는 구절은 임을 추구하

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뜨거운 가슴’이 갈등의 해소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붉은 마음’은 임을 향한 지조와 절개의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을 향한 그리움을 표상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X, O)

- ② ‘한 방울 피마져 불어넣’는 것은 생명력의 고취를,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것은 생명력의 회복을 함축한다.

**풀이** ‘나’가 ‘한 방울 피마져 불어넣’는 것은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창백한 꽃송이’에게 ‘피’로 상징되는 생명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므로 생명력의 고취를 함축한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다가 ‘피’를 흘린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자리에는 피리만 남아 임을 그리는 아픈 가락이 구천에 울려퍼지고 있으므로 송고한 희생을 함축하는 것이지 생명력의 회복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O, X)

- ③ **정답** ‘모든 것 다 잃고라도’와 ‘모든 것 다 잇고라도’는 화자의 헌신적 태도를 내포한다.

**풀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는 화자의 삶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것들을 잃더라도 임을 영원히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며,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잇고라도’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배제하고서라도 임을 영원히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화자의 헌신적(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이해이다.

- ④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과 ‘솟아 되는 날’은 화자가 지향하던 미래가 실현된 때를 가리킨다.

**풀이**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과 ‘솟아 되는 날’은 자신의 생명이 박탈되어 백골이 되는 때와 자신의 마음(붉은 마음)이 솟으로 변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다음 구인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와 함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을 영원히 그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과 ‘솟아 되는 날’은 화자가 지향하던 미래가 실현된 때가 아니라 화자가 임을 그리는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과 ‘솟아 되는 날’이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가 실현된 때라면 각각의 다음 구에서 그 뼈가 다시 죽거나 다시 재가 될 이유가 없다. (X, X)

- ⑤ ‘임의 손길’은 화자가 그리는, ‘못 잇힐 모습’은 화자가 꺼리는 대상이다.

**풀이** 임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화자에게 ‘임의 손길’은 화자가 그리는 대상이 맞지만, ‘못 잇힐 모습’은 ‘임’의 모습이나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꺼리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O, X)

33. **출제의도** 표현과 시상의 흐름 파악 **정답** ④

① [A]: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방'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A] 창문 하나 없던 낮은 월세 자취방.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던 방.

**풀이** [A]는 '한낮',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캄캄한 방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B]: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방'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B] 잠시 눈꺼풀에 긴 잔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귀귀하고 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러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풀이** [B]는 '어둠'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귀귀하다'는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캄캄한 방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C]: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C]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풀이** [C]는 '내 눈'이 어둠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인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라고 하여 주체와 객체를 뒤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정답** [D]: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어둠'이 지니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D]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방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었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풀이** [D]에서 쓰인 음성 상징어 '느릿느릿'은 '어둠'이 지니는 특징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잡동사니들'이 '어둠'을 빨아들이는 동작을 묘사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⑤ [E]: '서로', '스스로', '조금씩', '끊임없이' 등의 부사어를 통해 '물건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주고 되비취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풀이** [E]에는 '서로', '스스로', '조금씩', '끊임없이' 등의 부사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물건들이' '빛'을 발산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보기>

(가)는 한국전쟁의 시기에 생명의 가치가 짓밟히는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입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기를 소망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입을 그리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사물을 치밀하게 관찰하여 관찰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도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 넣는 작가 의식이 구현된 작품이다. 화자는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일상적 모습이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는 전쟁으로 인해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피리의 아픈 가락'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한스러운 심정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풀이**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는 '어둠'이라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꽃송이'라는 생명체가 창백해진 모습인데, 이를 <보기>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한국전쟁의 암담한 시기에 생명의 가치가 짓밟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구절은 전쟁으로 인해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환기한다. 또한 '피리의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소리이므로 <보기>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전쟁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상처와 한스러운 심정을 환기한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감상이다.

② (가)에서 '해 돋는 아침'은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하는 시기를, '거룩한 일월'은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풀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리야'라고 하였으므로 '해 돋는 아침'은 화자가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실현을 바라는 희망적 미래 즉, 화자가 사모하는 '임'의 모습이 형상화되는 시간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하는 시기이다. 또한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라고 하였으므로 '거룩한 일월'은 '임의 손길' 달아 '나'가 우는 시기인, 입을 만나는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된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감상이다.

③ (나)에서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과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캄캄한 '방'의 모습을 '어둠'을 주체로 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풀이**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과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은 캄캄한 방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일반적인 사고나 인식과는 달리 '어둠'을 주제로 설정하여 '어둠'이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어서 캄캄한 방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나)에서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은 자세히 보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관찰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겠군.

**풀이**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은 '어둠'에 적응하고 '어둠'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화자가 오랜 시간 '어둠'을 자세히 보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곧 <보기>에서 설명한 관찰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붙여 넣기 위한 관찰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정답** (가)에서 '다시 죽을 날까지'와 '다시 재 될 때까지'는 극단적 상황을, (나)에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빛을' '끊임없이 나누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나타낸 것이겠군.

**풀이** (가)의 '다시 죽을 날까지'와 '다시 재 될 때까지'는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바탕으로 '임'의 존재가 구현되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지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즉 다시 죽고 다시 재가 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보기>에서 말한 극단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빛을' '끊임없이 나누던' 상황은 외부의 빛에 의해 사물들이 보인다는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물 자체에 내재된 빛이 있고 더 나아가 사물들이 그 빛을 서로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물이 보이고 방이 밝아진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 일상적 모습이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

해설 - 화법과 작문

[35~37] (화법)

(발표) 「한지의 우수성」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④

- ① 질문을 통해 화제와 관련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①-①~② 여러분, 교황 요한 23세의 '지구본', 성 프란치스코의 친필기도문이 담긴 '카르톨라' 등 세계적인 종이 문화재의 복원에 전통 한지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발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②-②~③ 전통 한지는 어떻게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전통 한지의 제조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유사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발표 대상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②-⑦ 이 방식은 섬유질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지는 기계로 섬유를 분쇄하고 이를 재합성한 일반 종이보다 더 질깁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정답**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풀이** 제시문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④-①~② 이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지는 다른 종이보다 질기고, 변색과 변형에 강합니다. 그래서 종이 문화재 복원 재료로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자료 1]: 닥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백피를 잿물에 삶은 모습  
제시 이유: 잿물에 의해 백피 섬유질의 리그닌 성분이 제거됨으로써 변색에 강해짐을 설명하기 위해 **㉠**

[자료 2]: 잿물에 삶은 백피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모습  
제시 이유: 섬유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백피 섬유를 풀어 일반 종이보다 질겨짐을 설명하기 위해 **㉡**

[자료 3]: 풀어진 백피 섬유에 풀을 섞어 종이를 뜨는 모습  
제시 이유: 외발 뜨기 방식을 통해 섬유질의 결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변형에 강해짐을 설명하기 위해 **㉢**

- ④ **정답** [자료 3]은 외발 뜨기 방식을 통해 섬유의 결이 일정하지 않게 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풀이** 위 분석 내용 참고.

37. **출제의도** 듣기 활동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보기> 분석

**학생 1**: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몰랐던 내가 부끄러웠어. **㉠ 발표 내용에 관한 지식수준을 환기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

그런데 리그닌 성분이 무엇일지라 종이의 변색을 일으키는 걸까? **㉡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음.**

**학생 2**: 백피를 방망이로 두드리는데도 섬유질에 손상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 **㉢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음.**

섬유를 방망이로 두드릴 때와 기계로 분쇄할 때의 차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야겠어. **㉣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음.**

**학생 3**: 전통 한지의 제조 방식과 그 효과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준 점이 좋았어. **㉤ 발표자가 활용한 정보 제시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아 참, 개량 한지는 발을 앞뒤로만 흔들어 종이를 뜬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통 한지보다 강도가 약하겠네.  
**㉠ 발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음.**  
**㉡ 떠올린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추론하고 있음.**

- ⑤ **정답**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풀이** 위 <보기> 분석을 통해 볼 때, '학생 3'과 달리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38~42] (화법 + 작문)

(대화 + 초고)

- (가)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나) 「'대화형 인공지능 □□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의 초고」

3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②

- ① 대화 참여자에게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한다.

(가)

**학생 1**: 오늘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다들 자료 찾아봤어? 우리 모두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글이니깐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쓰기가 대화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이름으로 교지에 실을 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정답**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가)

**학생 1**: 그런데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학생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채팅하듯 질문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거든.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정보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정보에 대한 출처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추론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가)

**학생 1**: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추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④ 대화 참여자가 한 발언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한다.

(가)

**학생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채팅하듯 질문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거든.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직전의 '학생 2'의 말에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⑤ 대화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

(가)

학생1: □□이 어떻게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려 줄래?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한 '학생 2'의 발언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발화의 목적 및 기능 파악 **정답** ③

① ㉠: 앞선 발화 내용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화형 인공 지능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가)

학생1: 그런데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학생3: ㉠ 나도 그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터넷상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더라는 '학생 1'의 말을 듣고 '학생 3'이 그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본 기억을 떠올리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대화형 인공 지능의 종류에 대한 소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 개발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가)

학생1: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

학생3: ㉡ 응, 실제로 한 범죄 집단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조작된 데이터를 심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있었어. 보안이 취약한 데다가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아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지.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학생 1'의 질문에 '학생 3'이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학생 3'이 제시한 사례는 □□이 악용된 사례일 뿐 □□이 개발된 이유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정답** ㉢: 앞선 발화 내용에 수긍하며 □□의 인기 요인에 대한 논의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가)

학생3: 응, 실제로 한 범죄 집단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조작된 데이터를 심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있었어. 보안이 취약한 데다가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아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지.

학생2: ㉢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일 거야. □□을 통해 각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같은 창작물도 만들어 낼

수 있거든.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학생 3'의 말에 '학생 2'가 수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학생 2'가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한 논의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 앞선 발화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가)

학생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채팅하듯 질문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거든.

학생3: ㉣ 네 말을 듣고 보니 □□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이 인기를 끄는 요인일 거야.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학생 3'이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학생 1'이 한 발화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는 '학생 3'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토대로 '학생 1'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가)

학생2: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학생1: □□이 어떻게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려 줄래?

학생2: ㉤ □□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지식 재산권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용해서 답변을 제공하니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학생 2'가 '학생 1'의 요청에 따라 □□의 지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부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2'는 □□이 어떻게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을 뿐, □□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① 대화 내용: 대화형 인공 지능의 정의 - 글쓰기 계획: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활용된 기술 구체화하기

(가)

학생2: 대화형 인공 지능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대화형 인공 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 지능의 한 유형으로, 다양한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됐다고 해.



(나)

①-② 백과사전에 따르면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으로, 자연어 처리,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 언급된 대화형 인공지능의 정의가 (나)에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 대화형 인공지능에 활용된 기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대화 내용: □□의 기술 수준 - 글쓰기 계획: 일반적인 챗봇과 비교해 □□의 기술 수준 부각하기

(가)

**학생 3:** 나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최근에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나다.

(나)

①-③ 미리 입력된 몇몇 내용을 출력해 질문에 답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문의 맥락과 어조에 따라 스스로 생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에 전문가 못지않은 답변을 제공하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 언급된 □□의 기술 수준이 (나)에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 일반적인 챗봇과 □□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대화 내용: □□의 인기 요인 - 글쓰기 계획: □□의 장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기

(가)

**학생 2:**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일 거야. □□을 통해 각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같은 창작물도 만들어 낼 수 있거든.

**학생 3:** 네 말을 듣고 보니 □□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이 인기를 끄는 요인일 거야.

(나)

②-①~④ □□은 답변에 한계가 없다. 각종 생활 정보는 물론 '사랑', '정의'와 같은 철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질문도 거뜬하게 답변해 낸다. 나아가 질문을 거듭할수록 더 분석적인 답변과 더 정밀하게 묘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각종 보고서는 물론 소설이나 시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은 채팅하듯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 언급된 □□의 인기 요인이 (나)에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의 유용성, 활용도, 접근성 등이 분석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정답** 대화 내용: □□의 결점 - 글쓰기 계획: □□의 결점을 환경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하기

(가)

**학생 3:** 나도 그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터넷상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 3:** 응. 실제로 한 범죄 집단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조작된 데이터를 심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례가 있어. 보안이 취약한 데다가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아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지.

**학생 2:** □□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지식 재산권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용해서 답변을 제공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

(나)

③-②~④ □□은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학습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거짓 선동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은 필연적으로 타인이 만들어 낸 지식이나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 언급된 □□의 결점이 (나)에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에서 □□의 결점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대화 내용: □□ 사용의 올바른 자세 - 글쓰기 계획: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 □□ 사용 자세에 대한 견해 강화하기

(가)

**학생 3:** □□의 결점을 밝히면서 올바른 사용 자세를 글에 제시하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거야.

(나)

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는 □□은 인류의 지능과 언어력에 한참 못 미치며 도덕적이지 않다며 혹평했다. 따라서 □□의 결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겠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 □□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제시할 것이 언급되었고 (나)에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한 말이 인용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이해 **정답** ①

<보기> 분석

**고쳐 쓰기 전 제목:**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열풍, 도대체 뭐길래?

**고쳐 쓴 제목:**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열풍, 결점 파악해 주체적으로 사용해야.

- ☞ 대화형 인공 지능의 인기 현상을 부각하는 내용은 유지됨.
- ☞ 대화형 인공 지능 '□□'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이 삭제됨.
- ☞ 대화형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자세에 관한 견해가 새롭게 추가됨.

① **정답** □□ 사용에 대한 네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때?

**풀이** 위 <보기> 분석 내용 참고.

42. **출제의도** 비평문 점검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예/아니오)
•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드러냈는가?	㉡
•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도 다루었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했는가?	㉤

① 최근 개발된 □□이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나)

①-① 최근 개발된 대화형 인공 지능 '□□'이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화형 인공 지능 □□의 인기 현상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의 인기 현상은 부정적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나)

③-① 그러나 □□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누군

가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으며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의 인기 현상은 부정적이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 □□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필자가 선택한 관점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학습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는 일과 학습 데이터의 모든 원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더라도 그 시스템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나)

④-③~④ 학습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하는 일과 학습 데이터의 모든 원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의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해커들에 의해 뚫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더라도 그 시스템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 □□의 결점이 보완될 수 없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음을 할 수 있고, 이는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의 결점들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보완될 것이다)을 보완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의 인기 현상에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나)

②-⑤ 이에 □□의 인기 현상에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 □□의 인기 현상에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⑤ **정답** □□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정보 제공의 가능성, 악용될 가능성, 지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같은 결점들이 점차 보완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에 '예'라고 해야지.

(나)

④-① 물론 □□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결점들이 점차 보완될 것이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 □□의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약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필자가 선택한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3~45] (작문)

(초고) 「청소년의 척추 건강」

43.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④

① ㉠: 허리가 아픈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해야겠어.

①-①~② 허리가 아픈 청소년이 늘고 있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32% 증가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 청소년기 허리 통증의 원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야겠어.

①-③~④ 청소년기 허리 통증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자세이다. 의자에 엉덩이를 반만 걸치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는 등 잘못된 자세로 걸어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해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 척추 옆굽음증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상을 소개해야겠어.

②-② 척추 옆굽음증은 척추가 옆으로 심하게 굽은 질환으로, 이 질환이 생기면 허리 통증은 물론 변형된 척추가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정답** ㉣: 성인과 청소년의 척추 옆굽음증 치료법을 비교해야겠어.

**풀이** 성인과 청소년의 척추 옆굽음증 치료법을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바른 자세를 알려줘야겠어.

③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가슴과 어깨를 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 ②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독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 조건 1: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시사  
 조건 2: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

① 자세가 허리 건강을 좌우한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으로 허리 건강을 지켜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하자.

**풀이** 허리 건강을 지켜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다는 내용을 통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조건 2’에 부합하지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 1’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X, O)

② **정답** 바른 자세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유지할 수 있다. 튼튼하게 관리된 허리는 건강한 신체 발달의 지양분이 될 것이다.

**풀이** 바른 자세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조건 1’에 부합하고, 튼튼하게 관리된 허리가 건강한 신체 발달의 지양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조건 2’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다. (O, O)

③ 바른 자세는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

**풀이** 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으므로 ‘조건 1’에 부합하지 않고,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X, X)

④ 허리만 꼳꼳이 세워도 바른 자세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앉을 때나 걸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풀이** 허리를 꼳꼳이 세우는 것만으로도 바른 자세라는 내용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조건 1’에 부합하지만,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 2’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O, X)

⑤ 허리는 사소한 원인으로 나빠지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는 또다시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풀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 1’에 부합하지 않고,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건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X, X)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정답** ③

**<보기>**

**㉠. 통계 자료**

㉠-1.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 환자 현황(2021년)

㉠-2. 흰 척추 각도에 따른 치료 방법

흰 척추 각도	치료 방법
20도 미만(초기)	정기적인 관찰
20도~39도(중기)	보조기 착용
40도 이상(말기)	수술

**㉡. 전문가 인터뷰**

“성장기 척추 옆굽음증은 골반 불균형을 초래해 키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신문 기사**

‘애들이 무슨 허리가 아프냐’라며 아이들의 허리 통증을 도외시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의 확대를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한 시간에 십 분은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길러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2를 활용하여, 척추 옆굽음증은 초기나 중기와 달리 말기로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척추 옆굽음증은 초기나 중기와 달리 말기로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

**풀이** ㉠-2를 통해 척추의 흰 각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40도 이상 휘었을 경우 말기로 진단되며 치료 방법이 수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하면 말기 척추 옆굽음증은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를 활용하여, 키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척추 옆굽음증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2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척추 옆굽음증은 척추가 옆으로 심하게 굽은 질환으로, 이 질환이 생기면 허리 통증은 물론 변형된 척추가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풀이** ㉡를 통해 성장기 척추 옆굽음증은 키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하면 척추 옆굽음증이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의 장애 발생 가능성 외에도 다른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정답** ㉢을 활용하여, 척추 옆굽음증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을 척추 옆굽음증의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제시하는 2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척추 옆굽음증은 초기나 중기와 달리 말기로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척추 옆굽음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전방 굴곡 검사’이다.

**풀이** ㉢을 통해 청소년의 허리 통증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척추 옆굽음증에 대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1과 ㉢을 활용하여, 요즘 들어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척추 옆굽음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척추 옆굽음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 들어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척추 옆굽음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풀이** ㉠-1을 통해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 환자가 전체 환자의 4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을 통해 청소년 척추 옆굽음증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하면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척추 옆굽음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⑤ ㉡과 ㉢을 활용하여,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척추 옆굽음증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3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척추 옆굽음증을 예방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가슴과 어깨를 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풀이** ㉡를 통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을 통해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이 척추 옆굽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하면 척추 옆굽음증의 예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해설 - 언어와 매체

[35~39] (언어)

[35~36] (지문형)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특징」

제시문 내용 정리

- 주제: 현대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쓰임과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예외적 쓰임
- 짜임
  - 1문단: 현대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의'의 쓰임
    - 관형격 조사 '의'는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  
ex) 나의 옷, 꽃의 아름다움
    -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내기도 함  
ex) 불굴의 투쟁, 불후의 명작
    -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내기도 함  
ex) 통일의 위업(= 통일이라는 위업)
    -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 혹은 주체임을 나타낼 때도 쓰임  
ex) 질서의 확립(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 국민의 단결(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
  - 2문단: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종류와 쓰임
    -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ㅅ'과 '이/의'가 쓰임  
→ '이/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임
    - 이 시기 관형격 조사는 대부분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냄
    -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내기도 함  
ex) '도적의 평호물 드르니[도적이 평정됨을 들으니] → '도적'이 명사절의 주어임을 표시  
'아비의 便安(편안)히 안즌 돌 알오[아비가 편안히 앉은 줄 알고] → '아비'가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표시
  - 3문단: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의 예외적 쓰임
    - 중세 국어에서는 앞 체언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일 때는 '이/의', 앞 체언이 유정물이 아니거나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는 것이 원칙
    -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ㅅ'이 쓰일 자리에 '이/의'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함  
ex) '부터의 니르시는 恩(은)[부처께서 이르시는 은혜] → '부터'와 같은 존칭의 대상인 체언에 '의'가 결합
    - 뒤 체언이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말씀(말)', '무슴(마음)', '의심' 등일 때는 '이/의'가 쓰일 자리에 'ㅅ'이 쓰이는 현상이 일어남  
ex) '狄人(적인)ㅅ 서리에 가사[오랑캐의 사이에 가시어] '國人(국인)ㅅ 의심[나라 사람들의 의심]

→ '狄人(적인)'이나 '國人(국인)'과 같은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 체언에 'ㅅ'이 결합

35. 출제의도 > 내용의 이해 적용 정답 ③

① '장군은 조정으로부터 충무공의 칭호를 받았다.'에서의 '의'는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A]-① 관형격 조사 '의'는 '나의 옷', '꽃의 아름다움'에서처럼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A]-② ~ '통일이라는 위업'과 같은 의미인 '통일의 위업'에서처럼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형격 조사 '의'는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충무공의 칭호'는 '충무공이라는 칭호'와 의미가 같으므로, 이때의 '의'는 '칭호'가 '충무공'에 보유되는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의'는 '충무공'이 곧 '칭호'임, 즉 '충무공'과 '칭호'가 동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세월이 나의 젊음을 빼앗아 갔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낸다.

[A]-① 관형격 조사 '의'는 '나의 옷', '꽃의 아름다움'에서처럼 뒤 체언이 앞 체언에 보유되는 대상이나 속성 따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A]-③ 또한 '질서의 확립'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거나, '국민의 단결'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낼 때도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형격 조사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젊음'에서 뒤 체언 '젊음'은 행위나 작용이 아니라 상태이므로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의'는 '꽃의 아름다움'처럼 뒤 체언 '젊음'이 앞 체언 '나의' 속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정답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추구한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A]-③ 또한 '질서의 확립'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거나, '국민의 단결'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낼 때도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형격 조사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윤의 획득'에서 앞 체언 '이윤'은 뒤 체언 '획득'의 대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80도의 물에는 누구도 쉽게 손발을 담그기 힘들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낸다.

[A]-② 그러나 관형격 조사 '의'는 '불굴의 투쟁', '불후의 명작'에서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통일이라는 위업'과 같은 의미인 '통일의 위업'에서처럼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형격 조사 '의'는 앞 체언과 뒤 체언이 의미상 동격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80도'가 곧 '물'은 아니므로 '80도의 물'에서 앞 체언 '80도'와 뒤 체언 '물'은 의미상 동격이 아니라 앞 체언 '80도'가 뒤 체언 '물'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80도의 온도'의 경우에는 '80도'라는 온도와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두 체언이 동격임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판사는 범죄자의 반성을 믿지 않았다.'에서의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A]-② 그러나 관형격 조사 '의'는 '불굴의 투쟁', '불후의 명작'에서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

[A]-③ 또한 '질서의 확립'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거나, '국민의 단결'처럼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낼 때도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형격 조사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지닌 속성 따위와 관련되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반성'에서 앞 체언 '범죄자'는 뒤 체언 '반성'의 속성이 될 수 없다. 이때의 '의'는 앞 체언 '범죄자'가 뒤 체언 '반성'이라는 행위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의 이해

**정답** ④

<보기>

- ㉠ 分(분)은 목수미 그지라 段(단)은 모미 얼구리라  
[분은 목숨의 끝이다. 단은 몸의 형태다.]
- ㉡ 아히트 시절부터 센 날개를 빗겨스리나라  
[아이(의) 시절부터 센 날개를 매만지는구내]
- ㉢ 聖人(성인)의 古(고)치산 法(법)이로소니  
[성인께서 가르치신 법이니]
- ㉣ 忠(충)심이 冥(명)수의 高(고)쳐 호물 보아  
[충생의 마음이 하고자 함을 보아]
- ㉤ 世(세)인(인)의 말(말) 假(가)차(차)하사  
[세상 사람의 말을 빌리시어]

- ① ㉠의 '목수미'와 '모미'는 각각 모음 조화에 따라 '의'와 '이'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②-①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스'와 '이/의'가 쓰였는데,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였다.

**풀이**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목수미'와 '모미'는 각각 '목숨'과 '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목숨'에서 둘째 음절의 모음 'ㅜ'는 음성 모음이고, '몸'의 모음 'ㅛ'는 양성 모음이므로, 각각 모음 조화에 따라 '의'와 '이'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의 '아히'는 뒤 체언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일 때, '이/의'가 쓰일 자리에 '스'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③-①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앞 체언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일 때는 '이/의'가 쓰이고, 앞 체언이 유정물이 아니거나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일 때는 '스'가 쓰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

③-③ 이와 달리 뒤 체언이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말씀(말)', '마음(마음)', '의심' 등일 때는 '이/의'가 쓰일 자리에 '스'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히'는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므로 관형격 조사 '이/의'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③-③에서 언급된 것처럼 뒤 체언이 '시절'과 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면 '이/의' 대신 '스'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즉 '아히'는 본래 '아히인'으로 쓰이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대신 '스'가 결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③ ㉢의 '聖人(성인)'의는 관형격 조사가 앞 체언이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스'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③-① ~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스'가 쓰일 자리에 '이/의'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풀이** '聖人(성인)'은 존칭의 대상이므로 관형격 조사 '스'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③-①에서 언급된 것처럼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스' 대신 '이/의'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즉 이 문장에서 '聖人(성인)'의 古(고)치산은 '성인께서 가르치신'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절이고 '聖人(성인)'은 이 관형사절의 주어이므로, '聖人(성인)'의는 본래 '聖人(성인)스'로 쓰이는 것이 원칙임에도 '스' 대신 '의'가 결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정답** ㉣의 '충심이'는 관형격 조사가 앞 체언이 명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스'가 쓰일 자리에 '이'가 쓰인 사례로 볼 수 있군.

③-① ~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는 '스'가 쓰일 자리에 '이/의'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풀이** '중성'은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므로 '이'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이 문장의 명사절은 '무슨의 하고저 흠(을)'이므로 이 명사절의 주어는 '무슨'이지 '중성'이 아니다. 따라서 '중성'이 앞 체언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시' 쓰일 자리에 '이/의'가 쓰이는 현상과 무관하다.

⑤ ㉠의 '世人(세인)'는 뒤 체언이 '말씀'임에도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 뒤에는 '이/의'가 쓰인다는 원칙이 지켜진 사례로 볼 수 있군.

- ③-①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앞 체언이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일 때는 '이/의'가 쓰이고, 앞 체언이 유정물이 아니거나 존칭의 대상인 유정물일 때는 '시'가 쓰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
- ③-② 이와 달리 뒤 체언이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말씀(말)', '마음(마음)', '의심' 등일 때는 '이/의'가 쓰일 자리에 '시'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풀이**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世人(세인)'은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③-②에서 언급된 것처럼 뒤 체언이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나 '말씀(말)', '마음(마음)', '의심' 등일 때는 '이/의'가 쓰일 자리에 '시'가 쓰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뒤 체언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世人(세인)'로 쓰였으므로, 이는 존칭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 뒤에 '이/의'가 쓰인다는 원칙이 지켜진 사례로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용언의 불규칙 활용의 이해 **정답** ③

**<보기>**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정답** 납품할 물건을 배에 실어 보냈다.  
**풀이** '실어'는 '신다'의 어간인 '신-'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는 'ㄷ'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오랜 시간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다.  
**풀이** '생각하여'는 '생각하다'의 어간인 '생각하-'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어미의 '-아'가 '-여'로 바뀌는 '여' 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정답** 그는 얼굴 혈색이 빨개 젊어 보였다.  
**풀이** '빨개'는 '빨갱다'의 어간인 '빨갱-'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의 'ㅎ'이 탈락하면서 어미도 '-아'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뀌는 'ㅎ'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반죽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주었다.  
**풀이** '저어'는 '젓다'의 어간인 '젓-'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ㄷ' 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어느새 정상에 이르러 일출을 볼 수 있었다.  
**풀이** '이르러'는 '이르다'의 어간인 '이르-'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미의 첫소리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알아두기** »

■ **'ㅎ'불규칙 활용 VS 규칙 활용**

'좋다'와 같은 경우에는 '-아/-어' 어미 활용을 할 때, '좋아'의 형태로 활용하므로 어간 '좋-'의 'ㅎ'이 활용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좋아'의 발음은 [조아]이므로 'ㅎ'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활용에서의 형태 변화와 음운 변동 현상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38. **출제의도** 담화의 이해 **정답** ⑤

**<보기>**

**지명:** 아직 과제 다 못 끝냈어? 연극 보려면 서둘러야 해.  
**현진:**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봐.  
**미연:** 나도 곧 끝나. 과제 끝난 뒤에 ㉠ 그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명:** ㉠ 우리 모두 과제는 ㉡ 어제 끝내자고 말한 건 ㉢ 너희였잖아.  
**현진:** 가능하면 ㉣ 그렇게 하자는 거였지. 미안해.  
**미연:** 현진아 ㉣ 이렇게 하자. 과제는 나중에 하고, 지금 출발하기로. 아 참, 자혜는 극장에 먼저 ㉣와 있는 거지?  
**지명:** 응, 우린 거기 ㉣ 가서 자혜랑 만나면 돼. 그런데 내가 너무 재촉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미연:** ㉣ 방금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  
**현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제 ㉣ 금방 끝낼 수 있는데…….

- ① ㉠과 ㉡ 모두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풀이**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의 '그때'는 발화 시점이 아니라 '미연'과 '현진'이가 과제를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 언제인지가 결정되고, ㉡의 '어제'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보다 하루 전을 가리키므로 발화 시점에 따라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따라서 ㉠만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은 ㉣과 달리 가리키는 대상에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풀이**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는 화자인 '지명'은 물론 청자인 '너희'에 해당하는 '현진'과 '미연'이 포함된다. 또한 ㉣은 이인칭 대명사이므로 가리키는 대상에 항상 청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가리키는 대상에 청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과 ㉤은 모두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풀이**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이전 발화인 ‘우리 모두 과제를 어제 끝내자고’를 가리키지만, ㉡은 이후 발화인 ‘과제는 나중에 하고, 지금 출발하기로’를 가리킨다. 따라서 ㉠만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는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풀이**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은 화자인 ‘미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 ‘극장’으로의 이동을 나타내고, ㉡ 역시 화자인 ‘지명’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 ‘극장’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 ㉢ 모두 화자가 없는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정답** ㉠은 ㉡과 달리 발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을 가리킨다.

**풀이**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지명’이가 다른 담화 참여자를 재촉했던 시점, 즉 이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을 가리키고, ㉡은 지금이라도 과제를 한다면 끝낼 수 있는 시점, 즉 발화 시점보다 바로 조금 후의 시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과 달리 발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단어와 문장의 이해

**정답** ③

**<학습 활동> 정리**

- 수식언 중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가 문장에 사용될 것.  
☞ 관형사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야 한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일 것.  
☞ 홀문장을 찾아야 한다.
-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특수 어휘가 문장에 사용될 것.  
☞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야 한다.

①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옷을 사주셨다.

**풀이**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할아버지께서’이고 서술어는 ‘사주셨다’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홀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관형사가 없고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도 없다.(※ 이 문장에서 객체는 ‘손자’이므로 ‘할아버지’가 객체를 높이는 높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형사(X), 홀문장(O),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X)

② 학생들은 어려운 내용을 선생님께 여쭙다.

**풀이**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내용이 어렵다’와 ‘학생들은(그) 내용을 선생님께 여쭙다.’가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내용이’와 ‘학생들은’이고 서술어는 ‘어렵다’와 ‘여쭙다’가 된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홀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이다. 또한 ‘어려운’은 형용사 ‘어렵다’의 어간 ‘어렵-’에 관형형 전성 어미 ‘-은’이 붙은 관형어이므로 관형사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인 ‘여쭙다(여쭙+었+다)’가 사용되었다.

관형사(X), 홀문장(X),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O)

③ **정답** 어머니는 할머니를 온갖 정성으로 모셨다.

**풀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머니는’이고 서술어는 ‘모셨다’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홀문장이다. 또한 ‘모든 종류의’라는 뜻을 지닌 관형사 ‘온갖’이 사용되었고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인 ‘모셨다(모시+었+다)’도 사용되었다.

관형사(O), 홀문장(O),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O)

④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옛 추억을 들려주셨다.

**풀이**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버지께서’이고 서술어는 ‘들려주셨다’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홀문장이다. 또한 ‘예전의’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 ‘옛’이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객체인 ‘우리’를 높이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주어가 아버지이고 객체가 ‘우리’이므로 객체 높임을 할 상황이 아니며, ‘들려주셨다’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있는 형태일 뿐 특수 어휘는 아니다.)

관형사(O), 홀문장(O),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X)

⑤ 발표자는 청중들께 여러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풀이** 이 문장은 ‘발표자는 청중들께 여러 예를 들었다’와 ‘발표자는 청중들께 설명했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난 겹문장이다. 또한 ‘수효가 많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관형사 ‘여러’가 사용되었다. 한편, 객체인 ‘청중’들을 높이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관형사(O), 홀문장(X),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X)

**알아두기**

**※ 관형사와 관형어**

관형사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도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역시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관형사로는 ‘여러, 온갖, 여남은, 옛, 새, 한’ 등이 있다. 관형어는 ‘동생의 방’처럼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거나, ‘좋은 친구’처럼 용언에 관형형 전성 어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런데 ‘나는 좋은 친구가 많다’의 경우 ‘좋은’은 비록 한 단어이지만 관형절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친구가 많다’는 ‘나는 친구가 많다.’와 ‘친구가 좋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문장이기 때문이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주체를 높이는 대표적인 특수 어휘에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이 있고, 객체를 높이는 대표적인 특수 어휘에는 ‘여쭙(쭙)다, 모시다, 드리다, 뵈(뵘)다’ 등이 있다.



[40~43] (매체)

(실시간 방송 + 누리 소통망 게시물)

(가)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

(나) 「방송을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

40. 출제의도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이해 정답 ⑤

① 진행자는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학생회 소식통' 시간입니다.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진행자가 학교명인 '○○고'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고 학생들'로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이번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관심을 부각하고 있다.

(가)

진행자: ~ 현재 접속자 수가 무려 311명으로, 최대 접속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진행자가 현 접속자 수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번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관심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진행자는 상대가 안내하지 않은 사항을 밝히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가)

진행자: 학년별 좌석 배정 방식만 안내해 주셨는데요 반별, 개인별 좌석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학생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진행자가 학생회장에게 반별, 개인별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학생회장은 화면에 제시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404	79	47	530	549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첨
응답 수(명)	221	183

\* 참조

STAGE

- 학년별 순환: 행사 때마다 좌석 A·B·C 구역을 학년별로 번갈아 가면서 배정
- 학년별 추첨: 행사 때마다 좌석 A·B·C 구역을 학년별로 추첨해서 배정

학생회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지난주에 학생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입니다.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학생회장이 화면에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학생회임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⑤ 정답 학생회장은 학생이 한 발화를 재진술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

수민 맞아. 무대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다가 다치거나 다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학생회장: 수민 학생이 이야기한 상황,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

영우 설문지에도 화면처럼 좌석 배정 방식이 설명돼 있어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었어. 학생회 훌륭해!

학생회장: 영우 학생, 감사합니다.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학생회장이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회장이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장이 학생의 발화를 재진술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수용 태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① [A]: 수민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학생회장: ~ 그런데 사전에 좌석이 배정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명이 여러 자리를 맡아 친구들끼리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

수민 맞아. 무대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다가 다치거나 다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수민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근거로 교내 정기 문화 행사의 좌석 미배정이 초래한 문제를 언급한 학생회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B]: 영우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에서 내린 결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가)

학생회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지난주에 학생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좌석 배정 방식을 정했습니다.

영우 설문지에도 화면처럼 좌석 배정 방식이 설명돼 있어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었어. 학생회 훌륭해!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영우는 설문지에서의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학생회에 칭찬의 말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이 화면에 제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이며 학생회에서 내린 결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B]: 하영은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2. 좌석 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첨
응답 수(명)	221	183

**하영**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두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학년별 응답 결과는 알 수 없나요?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하영은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두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학년별 응답 결과는 알 수 없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C]: 상은은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이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가)

**학생회장**: ~ 첫째, 좌석은 학년별 순환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둘째, 좌석 배정은 이번 분기 문화 행사부터 적용되며, 1학년은 A 구역, 2학년은 B 구역, 3학년은 C 구역 좌석에 배정됩니다. 셋째, 각 학년의 좌석 배정은 A, B, C 순서로 순환됩니다. 즉, 다음 분기 문화 행사에서 1학년은 B 구역, 2학년은 C 구역, 3학년은 A 구역 좌석에 배정됩니다.

**상**은 저는 3학년인데요, 3학년은 참석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두 번 남아서 그 방식대로라면 B 구역은 못 앉아요. 이 점을 고려해 방식을 다시 세워 주세요.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상은은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학생회장의 발언 내용이 믿을 만한지 점검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정답** [C]: 현서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좌석 배정 방식의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가)

2. 좌석 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첨
응답 수(명)	221	183

**현서** 학년별 추첨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실행 전에 그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현서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년별 순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좌석 배정 방식의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메모 정리

- ①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
  - ☞ 설문 조사에서 '학년별 순환'과 '학년별 추첨'의 두 좌석 배정 방식이 선택 항목이 된 경위를 제시하지 않았음
  - ☞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을 방송에 보이지 않았음
  - ☞ 어떤 친구의 말에는 호응하고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답하지 않았음
- ②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 ☞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대한 설문 조사
- ③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
  - ☞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는 기능 -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기능
  - ☞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 - 댓글 기능

- ① ①: 두 좌석 배정 방식이 선택 항목이 된 경위를 밝히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나)

2. 좌석 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학년별 순환	학년별 추첨
응답 수(명)	221	183

○○○ 친구들 방송 봤나요?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면 좌석 배정 방식의 선택 항목이 뜬금없이 제시되어서 그 경위가 궁금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처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의 필자가 (가)에서 '학년별 순환'과 '학년별 추첨'이 선택 항목이 된 경위를 밝히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가)의 일부를 캡처한 화면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①: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칭찬하는 말에는 감사를 표하며 호응했지만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나)

사를 실시해 새로 정하면 불만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호응한 건 좋았지만,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답을 하지 않은 건 아쉬웠어요.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의 필자가 학생회장이 실시간 대화 창을 살피면서 보인 모습에서의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정답 ㉠: 설문 조사의 방법과 시점을 설명하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을 내부 회의로 정하지 말고 추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새로 정하면 불만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회장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의 처음 배정되는 좌석 구역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문 조사 추가 실시'를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에 앞서 언급된 미흡한 점은 설문 조사의 방법과 시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아니라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이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정답 ㉡: 학생회 공식 카페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한 학생회장의 말을 고려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가)

**학생회장:** ~ 학생 여러분께서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나)

학생회 공식 카페 가기 (클릭: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로)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에서 학생회장이 학생회 공식 카페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언급하였고, (나)에서 하이퍼링크로 제공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⑤ 정답 ㉢: 이번 '학생회 소식통' 방송을 본 학생들이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나)

댓글 창 열었으니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해 의견 나눠요  
 👍 83 댓글  입력  
 👤 지운: B 구역 좌석을 3학년부터 앞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  
 👤 유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1:26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의 필자는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생회 소식통' 방송을 본 학생들이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맥락에 따른 언어적 특성 이해 정답 ④

- ① 정답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의 안내가 곧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

**진행자:** ㉠ 오늘은 교내 정기 문화 행사의 좌석 배정과 관련해 학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학생회장이 안내하겠습니다.

**풀이** ㉠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학생회장의 안내가 곧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② 정답 ㉡: 보조사 '마다'를 사용하여, 문화 행사가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가)

**학생회장:** ㉡ 우리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예술인들을 초청해 강당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이** ㉡의 '마다'는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문화 행사가 분기에 한 번씩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정답 ㉢: 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문화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가)

**학생회장:** ㉢ 그런데 사전에 좌석이 배정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뛰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명이 여러 자리를 맡아 친구들끼리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풀이** ㉢의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문화 행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정답 ㉣: 보조 동사 '주다'를 사용하여,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안내를 애써서 적극적으로 하려 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

**진행자:** ㉣ 학년별 좌석 배정 방식만 안내해 주셨는데요 반별, 개인별 좌석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풀이** ㉣의 보조 동사 '주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말'로, 학년별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학생회장의 안내가 수용자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애써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을 나타내는 말'은 보조 동사 '들다'이다.

- ⑤ 정답 ㉤: 의존 명사 '중'을 사용하여, 반별, 개인별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

학생회장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풀이 ③의 '중'은 '무엇을 하는 동안'의 의미를 갖는 의존 명사로, 반별, 개인별 좌석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4~45] (매체)

(전자 문서로 된 안내서+누리 소통망 대화)

(가) 「강당 대관 안내서」

(나) 「학생과 선생님의 누리 소통망 대화」

44. <출제의도>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이해 정답 ④

① 강당 내부 모습을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전달했다.

(가)



<하늘 강당 내부 사진>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② 실시간 예약 현황을 음영의 차이를 통해 제시했다.

(가)

\* 실시간 예약 현황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예약 가능'인 날짜와 '예약 불가'인 날짜를 음영의 차이로 알 수 있게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③ 이용 절차를 단계별 행위의 주체를 밝히며 제시했다.

(가)

이용 절차	이용자 신청 → 관리자 심사 → 관리자 통보
----------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④ 정답 예약 방법은 예약 가능한 경로들을 나열해 제시했다.

(가)

예약 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 가기 (클릭)
----------	----------------------

풀이 위 인용을 통해 예약은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약 가능한 경로들을 나열해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이용 제한은 핵심 내용을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해 표시했다.

(가)

- 이용 제한
- 정치적 선전·선동, 종교 활동,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 근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클릭)

풀이 위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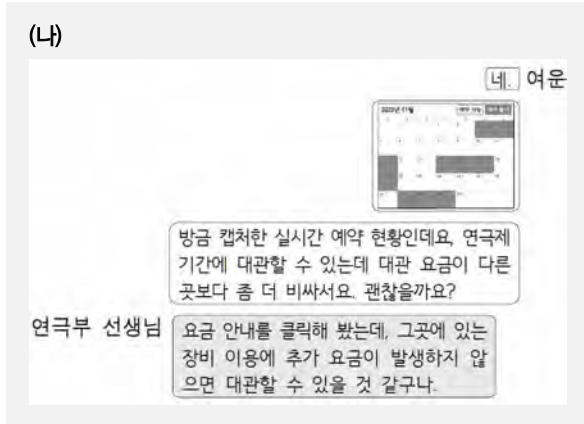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군.

(가)

대상	제한 없음
이용 절차	이용자 신청 → 관리자 심사 → 관리자 통보
예약 시기	2023.01.01. ~ 12.31.
* 실시간 예약 현황	
예약 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 가기 (클릭)
예약 취소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 요금	유료 요금 안내 (클릭)
문의 전화	01-234-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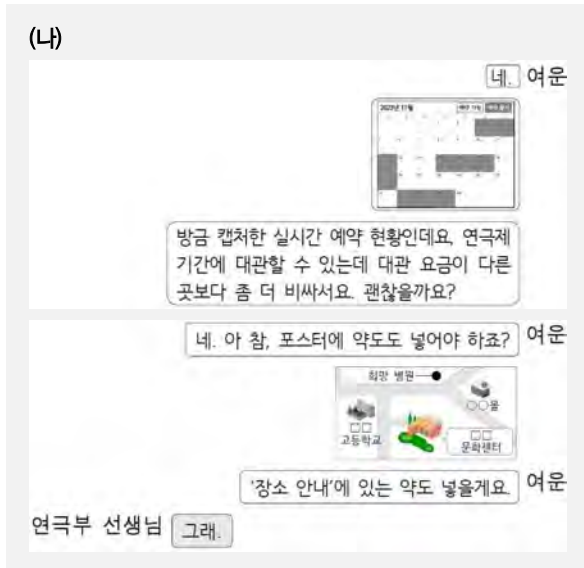
상세 내용

- 규모 및 장비
  - 규모: 360m<sup>2</sup> (204석)
  - 장비: 빔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조명 장비, 마이크
- 이용 제한
  - 정치적 선전·선동, 종교 활동,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 근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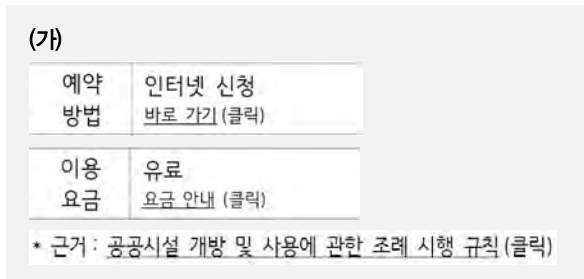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의 정보가 (나)에 전달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정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정답** (나)의 이용자들은 (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군.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서 '여운'이 강당 대관 안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예약 현황'과 '약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연극부 선생님'과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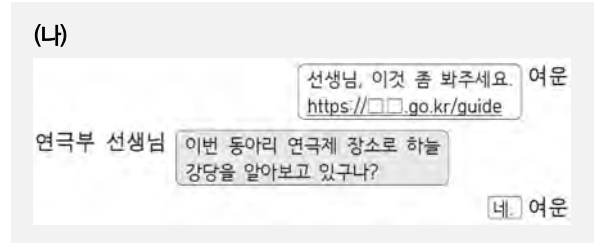
- ③ (가)는 (나)와 달리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풀이** 위 인용을 통해, (가)는 이용자가 예약 신청을 쉽게 하고, 이용 요금 및 이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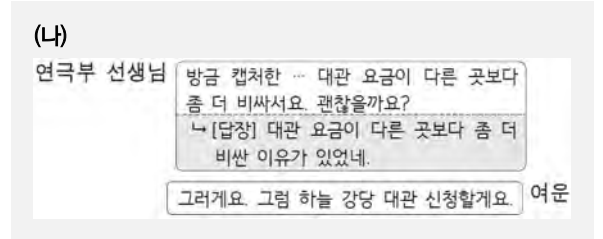
나 (가)에서는 이용자가 이러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용자가 외부의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는 것은 (가)가 아닌 (나)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군.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는 '여운'과 '연극부 선생님' 두 사람의 누리 소통망 대화로 대화에 참여한 이용자 사이에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나)가 아닌 (가)이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풀이** 위 인용을 통해 (나)에서 '연극부 선생님'이 '답장' 기능을 통해 '여운'의 이전 대화 내용을 불러와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환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2025학년도 출시 일정

	12월	1월	2월	3월	4월
출시일	12월 15일(1) 12월 29일(2)		2월 29일	3월 7일(1) 3월 19일(2) 3월 22일(3)	4월 26일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1회(2)			-바탕 모의고사 2회(1) -바탕 모의고사 3회(2)	-바탕 모의고사 4회 -바탕 모의고사 5회
단행본	-기출 MEET 바탕(1) -BON 바탕 독서편 권1(2) -BON 바탕 문학편 권1(2)		-BON 바탕 독서편 권2 -BON 바탕 문학편 권2	-BON 바탕 독서편 권3(3) -BON 바탕 문학편 권3(3) -BON 바탕 화작편(3) -BON 바탕 연매편(3)	
출시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
출시일	7월 12일	8월 2일	9월 6일	10월 4일(1) 10월 25일(2)	11월 4일
모의고사	수능 연계 ON 바탕(5회분)	-바탕 모의고사 6회 -바탕 모의고사 7회 -바탕 모의고사 8회	KEEP 바탕(5회분)	-바탕 모의고사 9회(1) -바탕 모의고사 10회(1) -바탕 모의고사 11회(1) -바탕 모의고사 12회(2) -바탕 모의고사 13회(2)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국어 연간 학습 플랜

바탕은 '국어를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도록  
최선의 국어 학습 커리큘럼을 함께 제시합니다.

교재명	학습 목표	1월~5월 (6평 전까지)	6월~8월 (9평 전까지)	9월~11월 (수능까지)
바탕 모의고사	수능 대비 실전 훈련	시간 제약 없이 독해 및 문제 해결에 집중	시간을 재고 풀이하며 자신만의 독해 전략 수립	시험 시간(80분)에 맞춰 풀이하며 실전 훈련
BON 바탕 독서편&문학편	공통과목 기본 학습	주 2회씩 풀이하며 전 권 1회독	틀린 문항 및 오답률 높은 문항 위주로 2회독	취약한 영역 위주로 복습하며 최종 점검
BON 바탕 화작편	선택과목 기본 학습	주 1-2회씩 풀이하며 전체 1회독	오답 위주로 보완 학습하며 2회독	취약한 영역 위주로 복습하며 최종 점검
BON 바탕 연매편		개념 학습 병행하며 문법 200제 풀이	주 연매 문항 1-2회씩 풀이	취약한 영역 위주로 복습하며 전체 2회독
기출 MEET 바탕	평가원 기출 분석	주 1회씩 풀이하며 1회독	주 2회씩 풀이하며 2회독	주 2회씩 풀이하며 최소 3회독 이상 학습
수능 연계 ON 바탕	공통과목 집중 학습		주 1회 이상씩 풀이하며 1회독	수능 연계 교과과 병행 학습하며 2회독



바탕국어연구소 · 주식회사 바탕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근신빌딩 제2신관 401호  
문의전화 : 070-4235-0120~1  
홈페이지 : [www.battant.net](http://www.battant.net)  
E-MAIL : [battant@battant.net](mailto:battant@battant.net) ([battant1@battant.net](mailto:battant1@battant.net)~[battant8@battant.net](mailto:battant8@battant.net))